



04 신년 특집

CEO 신년사
2019 송년 풍경
2020 시무식

12 공감 동화

개미와 벵짱이

22 스포츠라이트

프리미어리그와 개방성

42 주요 경영활동

소방·해양경찰 영웅 시상
과학문화재단
우수학위논문상·차세대과학자상 시상

통권 제458호 발행일 2020년 1월 10일 발행처 에스-오일 주식회사 홍보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92 홈페이지 www.s-oil.com E-Mail sabo@s-oil.com
제작 ㈜디자인소호 02-514-5164(주)성환인쇄 02-2273-0583

신년 특집

04
CEO 신년사

08
2019 송년 풍경

10
2020 시무식

12
공감동화
[협력] 개미와 벼지이

14
고전 속 핵심가치
[열정] 단기지교
그치지 않는 처음 그 열정

16
취미 연관 검색어
[연 날리기] 흥해명 사우(정유생산본부)

18
가족 추억 공작소
김재연 사우(장치1팀)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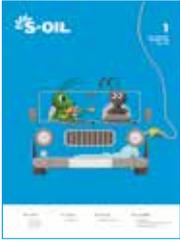
20
습관의 기적
땡그랑 한 푼
[1천 원 저축] 습관

22
스포츠라이트
오르지 못할 나무 없기에
도전은 계속된다
[프리미어리그와 개방성]

24
읽고 듣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축배의 노래

26
언제나 건강
강심장 만들기
[심장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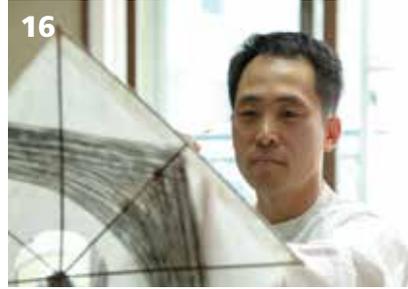


표지 속 동화

개미와 베짖이

일반적인 관점과 기준으로만 상대방을 평가하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슬우화 속 '개미와 베짖이'로부터 우리 안의 차이를 인정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생산적 협력의 열쇠를 생각해봅니다.

*관련기사 12쪽



16



18



34



38

28

이달의 활력평가

1월 탐구영역 [새해]

30

터벅터벅 소도시

[보이차 본고장]

중국 운남성 서쌍판납

34

정원의 품격

기품 있는 사색로, 문예창작림

[담양 소쇄원]

38

달리는 희망주유소

금강주유소

40

함께하는 풍경

고객이 보내온 칭찬사연

42

주요 경영활동

소방·해양경찰 영웅 시상

과학문화재단

우수학위논문상·차세대과학자상 시상

45

단신

전사 경영설명회

이웃돕기 성금 20억 기부

희망충전소·구도일트리 설치

유탄유 수출 대리점 계약체결식·간담회

47

임직원 등정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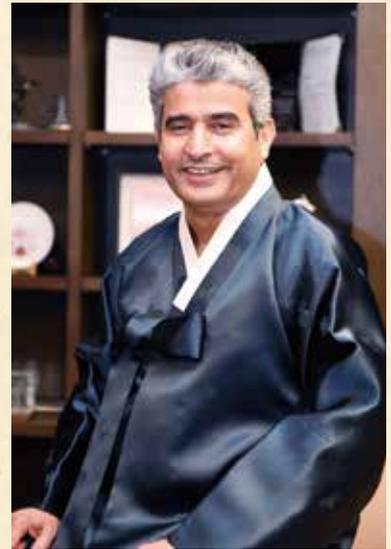
독자마당

30



하나의 팀 하나의 목표

더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갑시다



에스-오일 CEO
후세인 알 카타니

에스-오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자년 한 해 다행 건강과 행복 그리고 번영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2019년 회사는 통제 불가능한 힘든 시장 여건 속에서 통제 가능한 부분에 더 집중해 성과를 일궈왔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유·화학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RUC·ODC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동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석유화학 업황의 개선과 함께 회사의 수익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장에서는 지난해 계획된 주요 정기보수·점검(T&I)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시설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내수와 수출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회사의 입지를 더 넓히고 굳건히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2019년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존경받는 에너지 화학 기업이 되기 위한 기반을 더욱더 단단히 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데 주력했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많을 것입니다. 무역 분쟁, 수요 정체, 금융 시장 변동성 등 글로벌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기 자동차 같은 대체 기술 차량으로의 빠른 이동은 분명 수송 연료 수요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팀(one team)이 되어 창의적인 사고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우선 과제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비전2025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을 확신합니다.

첫째,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최적화를 지속해야 합니다.

시장 변화와 도전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해사기구(IMO)의 새로운 황 함량 규제와 같은 기회를 민첩하게 포착해 우리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국제해사기구의 새로운 황 함량 규제가 가져다주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제1중질유탈황공정 개선(#1 RHDS revamping)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최적화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모색하고 준법, 안전, 리스크 관리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해 비전 달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의 팀이 되어 석유화학사업 확장 2단계 투자인 SC&D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TC2C(Thermal Crude to Chemicals) 기술이 접목된 SC&D(Steam Cracker & Olefin Downstream) 프로젝트는 우리의 석유화학제품 생산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석유화학사업에서 충분한 규모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의 전략적 가치 면에서 중요한 투자인 바, 모든 임직원이 한 팀으로 팀워크 정신을 발휘해야 비로소 가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SC&D 프로젝트가 충분한 경제성과 자본 효율성을 확보하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조직은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기 하고, 다른 조직들도 물심양면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의 빠른 추격자로서 확실한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회사는 명확한 디지털 전환 로드맵(Digital Transformation Roadmap)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로서 IT를 업무 활동의 효율성, 생산성, 자동화를 향상시키고 가치를 창출시키는 조력자(enabler)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수한 기획력, 적절한 전략 수립, 신기술과 솔루션을 업무에 적용하는 것 모두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중요하지만 이는 절반의 성공만을 보장할 뿐 나머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달렸습니다. 모든 임직원이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우호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넷째,

최고 수준의 기업 지배 구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튼튼한 기업 지배 구조는 회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신뢰, 정도, 투명성, 책임이 기본이 되는 환경을 구축하는 토대입니다.

이에 우리는 균형과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의사결정 시 주주, 고객, 직원, 투자자, 공급업체, 협력업체, 지역사회, 정책입안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도모하면서 권리를 완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지배 구조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협력의 문화 속에서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인적자원이 우리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조직의 중추임을 알기에 새로운 인사 제도를 통해 공정한 보상, 성장과 학습 그리고 경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자신의 잠재력을 100% 발휘하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학습하는 조직 그리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서로 협력하는 열린 분위기 가운데 하나의 팀이 되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갑시다. 더 다양한 잠재적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과제인
안전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업장 내에 있는 임직원, 협력업체 그리고 방문자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안전은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본이자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부상과 사고는 예방 가능하기에 다 함께 무재해 사업장을 달성하고 안전을 일상 업무 활동의 필수 요소로 삼아 안전 리스크에 대해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엄중한 책임과 주인의식을 가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불확실성은 비전2025를 달성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존경받는 에너지 화학 기업을 향해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성공DNA'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올 한 해 모든 분야에서 '최고(excellence)'를 달성하기 위해 집중할 것입니다. 틀을 깨는 사고와 행동, 협력으로 업무에 임하며 내재된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도움으로 올해 더 큰 성공을 거두길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에쓰-오일 CEO

후세인 알 카타니

Hussain A. AL-Qahtani

새 도전 준비하는 한 해의 매듭

한 해를 되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존경과 고마움을 나누는 송년행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13일과 20일 본사와 온산공장에서는 각 사업장 소속 임직원이 모여 공감과 격려의 마음을 나눴다. 후세인 알 카타니 CEO와 임직원은 한 해의 성취를 되새기며 새 도전을 향한 결의를 다졌다. 🌟



12월 20일 본사 로비에 임직원이 모였다. 난관 속에 한 해를 보낸 서로의 수고로움을 다독인 자리다. 새해 새 의지를 다지는 목소리로 현장은 웃음과 탄식, 박수와 환호성이 교차했다.





12월 13일 온산공장을 방문한 알 카타니 CEO는 송년 분위기에 아랑곳없이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신분관 로비에 마련한 조촐한 자리를 통해 임직원 서로가 감사의 마음을 나눴다.



2020
시무식

최고 향한 집중 부단한 전진

2020 시무식 · 표창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시무식이 거행됐다. 1월 7일 본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시무식은 후세인 알 카타니 CEO를 비롯해 전 임직원과 신입사원이 참석한 가운데 온산공장과 전 지역본부·판매지사에 실시간 생중계로 이뤄졌다.

알 카타니 CEO는 “지난해 글로벌 경제 침체를 비롯해 통제 불가능한 힘든 시장 여건 속에서도 집중을 통해 자랑스러운 성과를 일궈냈다”며 어려운 한 해를 돌파하고 새해를 맞이한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에 더해 RUC·ODC 프로젝트 완수와 안정 가동, 주요 정기보수·점검(T&I)의 성공적인 마무리, 내수 및 수출 시장의 지속적 확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경영성과 등을 짚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존경받는 에너지 화학 기업을 향해 다각도로 헌신한 임직원들을 치하했다.





뒤이어 2020년 중점 추진과제로 △시장 변화에 더 잘 대응하고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한 지속적인 최적화 △하나의 팀(one team)으로서 석유화학사업 확장 2단계 투자인 SC&D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 △4차 산업혁명의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로서 확실한 디지털 전환 로드맵(Digital Transformation Roadmap) 수립 추진 △최고 수준의 기업 지배 구조 유지 △협력의 문화 속에서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꾀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과제인 안전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고 단언한 알 카타니 CEO는 “안전은 목적지가 아닌 여정”이라고 강조하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엄중한 책임과 주인의식으로 안전 수호에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끝으로 알 카타니 CEO가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내재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 확신하자 전사 임직원은 한결같이 품은 ‘성공DNA’를 환기하며 “성공, 성공, 파이팅!”을 외쳤다. 



CEO·총괄 표창

Best Team of the Year

[FCC2공정팀] 이동재·김동한·김태형·임진혁
[장치설계팀] 김대우·김진원·이주영
[세무팀] 김홍석·이재규·김기홍

Core Value

[Excellence] 정경두 (프로젝트추진1팀)
[Passion] 조광현 (용인지사)
[Integrity] 배기현 (감사2팀)
[Collaboration] 손원진 (유회마케팅전략팀)
[Sharing] 피준호 (탈황1부 탈황1과)

Digital Transformation Leader

박종현 (인력개발팀)
윤제필 (생산최적화팀)

SHE Development

최재수 (정유생산본부 Safety Group)
정관식 (인천저유소)
박평수 (화학생산본부 Safety Group)

Suggestion Award

지용희 (생산조정팀)
이용우 (FCC1공정팀)
김기선 (고객서비스팀)

Operational Excellence

최원철 (유회생산부 유회생산2과)
이계훈 (무역세무팀)
이용래 (무역세무팀)

Super Saver

이재찬 (올레핀공정팀)
이창훈 (부동산관리팀)

Sustainable Foundation

문보림 (리스크관리팀)
김서영 (준법지원팀)

Marketing Competitiveness ·

Market Leadership

박성수 (올레핀영업팀)
임종우 (IT운영팀)

*표창 관련 조직명은 개편 이전에 준하여 표기함



제1화 [협력]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개미와 베짖이

핵심가치 중 협력(collaboration)은 서로 다른 장점을 공유해 하나의 팀으로 나아가는 데 방점이 있다. 시련의 계절이 오면 각자는 가진 것을 움켜쥐고 타자의 단점만을 탓하기 쉽다. 해결방법은 하나, 시련을 기회로 만드는 협력의 마법을 발휘하는 것이다. 개미와 베짖이가 뚝뚝 뭉쳐 협력하기를 기대하는 봄이 오고 있다.

글. 박승역(숙명여대 기초교양대학 교수)

타고난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 나름 한 계절을 치열하게 살아냈음에도 인류에게 반면교사 노릇을 하게 된 곤충이 있다.
바로 베짖이다. 우리에게 <개미와 베짖이>로 익숙하지만 이솝(아이소포스) 우화의 그리스 완역 정본에 따르면 <매미와 개미들>이 맞다고 전해진다.
작가 이솝은 기원전 6세기 즈음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태어난 곳도 진위를 판정하기 어렵다. 그의 우화는 페리 인덱스(Perry Index)라는 일련번호를 쓰는데 근대 학자들이 그리스·라틴 우화를 분리하고 정렬해 체계를 부여한 학술적 결과다.





“여름에 왜 먹을 것을 모으지 않았니?”

“그럴 겨를이 없었어. 구성지게 노래하느라고.”

개미들이 웃으며 말했다.

“여름에는 피리를 불었으니 겨울에는 춤을 추렴.”

- <정본 이솝우화>* 속 '개미와 베짚이' 일부 -

* 이솝우화를 집대성한 가장 오래된 판본 중 하나인 1489년판을 완역한 정본(권미선 역, 창비, 2009)

부지런한 개미와 느긋한 개미는 상충할까

사실 개미는 그렇게 부지런하기만 한 곤충은 아니다.

미국 애리조나대 다니엘 차보네우(D. Charbonneau) 박사의 관찰에

따르면 한 집단 안에서 대략 40% 정도는 느긋한 개미들이다.

진화생물학적으로 볼 때 그 존재 이유가 있다. 조직 자체의 생존이라는 커다란 과제와 관련 깊다.

느긋한 개미들은 부지런한 개미들이 번아웃(burnout, 극도의 피로로 지친 상태) 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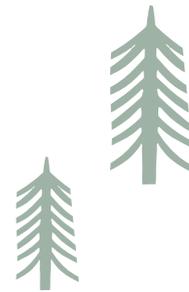
상비군 역할로 전면 등장한다. 부지런한 개미들의 숫자가 줄면

느긋한 개미 중 일부가 부지런한 개미를 대신해 조직을 유지시킨다.

생산적 차이에서 협력 열쇠 찾기

느긋한 개미의 존재 이유처럼 베짚이가 쉬 없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도 있다. 6~8개월의 짧은 생존기간 동안 왕성히 번식하기 위해서다. 획일화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다. 중요한 점은 서로의 차이를 어떻게 생산적인 차이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차이가 생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각자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격려하고, 존중과 배려로 북돋워 주는 문화에서 가능하다. 진정한 협력은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다.

우리 사이의 지식과 기회, 경험을 인정하고 공유하는 데서 협력은 시작된다. 활력에 목마른 개미와 끝없이 활력을 불어넣는 베짚이의 각 역량을 조화롭게 바라본다면 그 둘은 더 멀리, 더 오래 함께 가는 협력의 힘으로 시련의 계절을 극복할 것이다. 🌻





핵심가치를 되새기며 부단히 나아갑니다. 사자성어에 얽힌 고전 이야기 속에서 핵심가치를 생각합니다.

斷 機 之 教

그치지 않는 처음 그 열정

글. 박수밀(고전문학자)

핵심가치
[열정] 편

— 열정의 기술 하나, 꾸준함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사람들은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의 첫발을 내딛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갖 핑계들이 새해 굳은 의지를 무색케 한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뒤흠라.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뒤흠라 높다 하더라.”

조선 중기 양사언의 시조다. 핑계를 대며 노력하지 않고 상황만 탓함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태산의 실제 높이는 1천530m 내외로 우리나라 태백산(1천566m)보다 낮으니 지레 겁부터 먹고 도전하지도 않는 태도는 분명 문제일 수 있겠다. 위대한 사상가나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처음 결심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인 데 있다. 맹자의 단기지교(斷機之教) 이야기는 좋은 교훈을 준다.

어릴 때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공부에 매진하던 맹자는 홀로 있는 어머니가 그림기도 하고 공부에 싫증이 나 기별 없이 집을 찾아갔다. 때마침 베를 짜고 있던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굳은 얼굴로 물었다.

단기지교

베를 끊어 전하는 가르침



斷

끊을 단

1. 끊다 2. 결단하다(決斷--)

機

틀기

1. 틀, 기계 2. 베틀

之

갈지

1. 가다 2. (영향을)끼치다

教

가르칠 교

1. 가르치다 2. 본받다

“배움이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아직까진 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짜고 있던 베를 단칼에 잘라 버렸다.
맹자가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 어머니! 왜 짜고 있던 베를 잘라 버리세요?”
“베는 한 올 한 올 연결돼야만 옷이 완성된다.
배움도 한 땀 한 땀 쌓여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다.
네가 배움을 중도에서 그만두는 것은 내가 짜고 있던 베를 자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야 도대체 무엇을 이룰 수 있겠느냐?”



어머니의 말에 맹자는 큰 깨달음을 얻고 스승인 자사에게 돌아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배움을 쌓은 끝에 공자에 버금가는 위대한 사상가가 됐다.

— 열정의 기술 둘, 결단

무엇이든 열정을 갖고 끝까지 노력하면 얻는 바가 분명히 있다. 문제는 중도에 포기하거나 합리화하는 마음에 있다. 맹자가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고 포기했다면 훗날의 맹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단기지고(斷機之教)에서 파생된 결단(決斷)이란 단어도 곱씹을 만하다. 맹자를 결단하도록 도와준 어머니의 단호한 결심이 없었다면 맹자는 평범한 사람에 머물렀을 것이다. 맹자의 성취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곁에서 붙들어주는 조력자의 단호한 결단이 있었다. 성취는 중단 없는 끈기와 강한 결단의 열정으로 빚어내는 결과물이다. 처음의 열정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원하는 바에 반드시 가까워질 수 있다.

경자년(庚子年)의 경자(庚子)는 흰쥐에 해당한다. 쥐는 재앙을 미리 감지하는 예지력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버티는 근면함을 지녔다. 번식력이 뛰어나 다산(多産)과 번영,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다. 2020년 쥐띠 해를 맞아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길 소망해 본다. 🌻

핵심가치 [열정]을 되새기며
필사로 사자성어를 익혀보세요!

斷機之教

斷機之教

斷機之教

斷機之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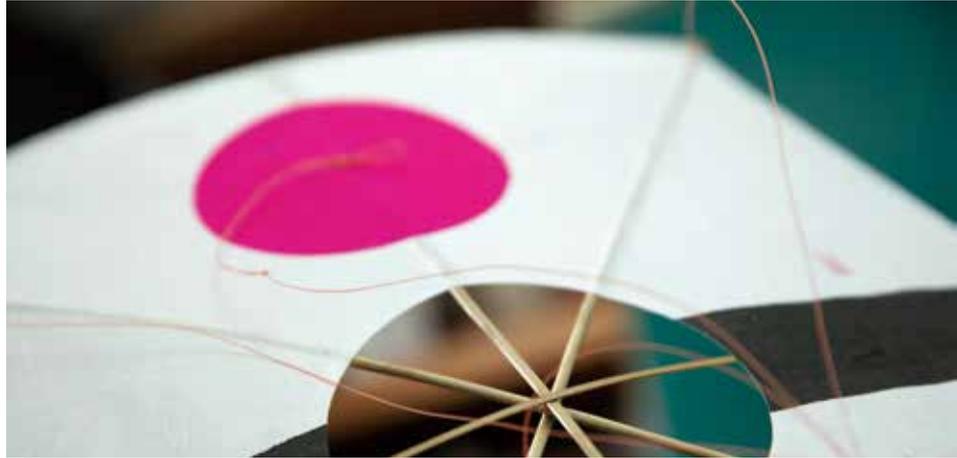
斷機之教

斷機之教



취미 연관 검색어

풍요로운 여가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소박한 여가를 꾸준히 이어가는 사우를 소개합니다.



연은
하늘에 띄우는
희망입니다

연(鳶) 날리기

바람 가르는 승부사

글. 홍해명(정유생산본부)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홍해명 사우의 인터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람과 팽팽한 기싸움

어릴 적 명절놀이로 즐기던 연에 본격적으로 몰입한 지 올해로 15년이다. 큰 아이 학교 과제를 준비하며 직접 만든 것이 계기가 돼 지금에 이르렀다. 흔히 날리는 동작만을 떠올리지만 연은 만들기와 겨루기, 비행, 예술의 총체다. 연 싸움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연실이 교차하며 상대 연실을 끊어 겨루는데 싸움에서 살아남은 연만이 하늘을 지배하는 승자가 되는 순간 그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연을 날리는 기본 기술은 각별하지 않다. 바람을 등지고 서서 바람이 강할 때는 열레를 풀고 잣아들 때는 당기며 바람을 타면 된다. 하지만 연 싸움은 다르다. 상대 연실과 겨루며 실이 끊기지 않도록 정교한 기술을 펼쳐야 한다.

승부를 향한 열망은 연에 그대로 담겼다. 연 애호가들은 고유의 문양을 갖는데 싸움에서 이기고 다시 돌아오라는 뜻으로 부메랑을 그렸다. 호(號)도 바람 타고 날라는 뜻의 비풍(飛風)이다. 좋은 기운을 담은 덕에 2018년 봄-겨울 진행된 전국연날리기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거머쥐었다.



우아한 새처럼 날카로운 연처럼

싸움 연으로는 방패연이 유일하다. 우리나라 전통 연 90% 이상을 차지한다. 연 중앙에 뚫린 구멍을 통해 거센 바람을 흘러보내며 방향을 탄다. 방패연 몸체에 색지를 붙이거나 그림, 글씨로 꾸며 공예품으로서 작품성을 높여도 좋지만 연 싸움을 위해 미적 아름다움보다는 기능에 충실해 만든다.

연 제작은 크게 댕살 가공과 한지 마름질 등 재료 준비와 연 살 붙이기, 방줄 매기, 낙관 찍기 과정으로 완성된다. 각 단계마다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지만 특히 겨루기용은 연실을 특수 가공해 실끼리 비벼들 때 끊기도록 제작한다. 이른바 날카로운 검과 같다는 뜻에서 사검(絲劍)이라 부른다. 이렇듯 열레 재료부터 연살, 종이, 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료를 전통에 입각해 직접 준비한다. 연살용 대나무를 구하기 위해 밀양, 담양까지 나선 것도 수차례다.

동호회원들과 교류도 중요하다. 연 풍습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나누는 정보는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유네스코에 한국의 연날리기 문화를 등록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 세계에 알려지기를 기원한다.

초속 4m 정도가 연날리기에 가장 좋은 바람이다. 낚시꾼이 좋은 물때를 기다리듯 연 날리기 좋은 바람을 맞을 때면 마음이 벌써 하늘에 가 있다. 🌸

연관 검색어

[한지·대나무·전통놀이]

지승공예

한지를 꼬아 기물을 만드는 전통공예로 필요한 도구는 칼과 송곳, 옷칠 도구가 전부다. 공예품으로 필통, 바구니, 향아리, 소반 등이 있다.
→ **한지 공식 홈페이지** www.hanjipaper.com
한지에 대해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채상공예

대나무 껍질을 얇고 가늘게 다스려 색을 입히고 그물을 짜듯 촘촘히 엮어 함을 만드는 공예다.
→ **울산 내일설계지원센터** www.usnoinjob.org
울산 태화강 십리대숲에서 간벌하는 대나무를 활용해 노후설계 차원의 대나무공예 교육을 진행한다.

투호

퇴계 이황이 정신 집중을 위해 즐겼던 놀이로 편을 나눠 통에 화살을 많이 넣는 팀이 승리하는 전통놀이이다. 최근 전통놀이가 유행하면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상품이 시중에 나와 있다.





개구쟁이 단짝 우리 아들

김재연 사우(장치1팀) 가족



럭키 세븐 일곱 살 우리아들, 아자 아자!
세상을 놀이터처럼 뛰노는
밝은 마음을 아빠가 꼭 지켜줄게

한 해를 여는 첫 가족사진 촬영 주인공은 올해 결혼 7년차, 입사 7년차를 맞아 7살 아들과 함께 이벤트를 신청한 김재연 사우(장치1팀) 가족이다. 트리플 럭키 세븐 행운을 진 가족이 유쾌한 추억을 쌓았다.



왼쪽부터 김재연 사우, 아들 민찬 군, 아내 이미선 씨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입사하자마자 복덩이가 태어났다며 주변에서 많은 축하를 받았어요.” 중학교 동창인 김재연 사우와 아내 이미선 씨는 오랜 우정을 사랑으로 발전시켜 결혼에까지 이르렀다. 마침 귀한 생명이 일찍 찾아온 덕분에 2014년 두 사람은 겹경사를 맞았다. 달콤한 신혼은 포기해야 했지만 탄생의 감격과 육아의 행복 속에 사랑의 깊이가 더해졌다.

“남편과 취향도 비슷하고 마음이 잘 맞아서 갈등 빛은 적이 없어요. 웨딩촬영과 아이의 돌 사진도 스튜디오 촬영보다는 저희끼리 오붓하게 진행했거든요.”

첫 스튜디오 촬영에 다소 긴장한 엄마, 아빠와 달리 아들 민찬 군은 자연스러운 표정과 몸짓으로 시선을 집중시킨다. 김재연 사우 부부는 그런 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진으로 남기는 게 이번 촬영의 목적이다.

“지금 아니면 나오지 않은 천진난만한 행동과 표정들이 잘 담기면 좋겠어요.”

아빠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민찬 군의 표정이 더없이 해맑다.

우리 아들을 소개합니다

가족 촬영을 마친 뒤 아들 민찬 군의 단독 프로필 촬영이 이어졌다. 아내 이미선 씨는 어디로 될지 모를 아들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하며 오매무새를 다듬는다. 생애 첫 스튜디오 나들이에 신이 난 민찬 군은 숨겨진 끼를 방출 하듯 익살스러운 표정과 동작으로 웃음을 선사한다.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스튜디오에서 진작에 촬영할 걸 그랬나봐요.” 김재연 사우는 작품처럼 앵글에 잡히는 자연스러운 아들 모습이 마냥 귀엽기만 하다. 요즘 공룡에 푹 빠진 민찬 군은 발톱 모양으로 손동작을 취하는가 싶더니 의자를 소품삼아 아동모델 같은 멋진 포즈를 스스로 연출하기도 했다.

“아이 에너지가 넘쳐서 주말이면 야외활동을 주로 해요. 아빠가 친구처럼 잘 활동하는 편이라 아이도 좋아하더라고요.”

가만히 엄마 이야기를 듣던 민찬 군은 개그맨 같은 아빠라며 장난치듯 진심어린 애정을 드러낸다. 아내와 아들의 칭찬에 김재연 사우 얼굴에도 봄처럼 웃음이 꽃핀다.

럭키세븐 2020을 향해!

“결혼과 동시에 출산으로 아내가 커리어를 접게 돼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민찬이가 좀 더 자라면 다시 꿈을 펼치도록 물심양면 지원할 생각입니다.”

김재연 사우의 진정성 있는 응원에 아내는 흐뭇한 미소로 화답한다. 부부의 새해 소망은 평범하면서도 특별하다. 지금처럼 아들 민찬 군이 몸과 마음 건강히 구김 없이 일곱 살 시기를 마음껏 즐기기를 바란다.

“민찬이가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느끼는 어른으로 성장하면 좋겠어요. 아내와 제가 살아온 삶도 매우 소중하고 감사한데 저희보다도 더 신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



습관의 기적

새 습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은 최소 3주입니다. 긍정적 삶의 마중물이 될 이달 이 습관을 제안합니다.

땡그랑 한 푼

[1천 원 저축] 습관



가랑비에 옷이 젖듯 소액을 꾸준히 모으면 든든한 유용자금이 된다. 점심식사 뒤 책상 위 저금통에 지갑 속 1천 원 지폐나 동전을 넣는 고전적인 방식부터 터치 한 번으로 저축은 물론 투자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소액저축 기회가 다양하게 열려있다.

1월
1천 원 저축

2월
업무 메모

3월
안구운동

4월
티타임

5월
동료 칭찬

6월
자투리 학습



01 저금통 효과

동기부여가 큰 저축 방법은 실물 저금통 활용이다. 현금보다 카드사용이 주가 됐지만 동전이나 천 원 단위 지폐가 생길 때마다 저금통에 넣어두면 요긴하게 쓰이는 용돈이 된다. 필요가 생길 때 로그인해야 하는 스마트뱅킹보다 직관적으로 저축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이점도 있다.

도움 되는 정보

달력 저축법

1일 1천 원, 2일 2천 원...30일 3만 원과 같이 매일 1천 원씩 늘려가는 저축법이다. 금액 부담이 적고 한 달이면 49만6천 원까지 저금통에 모을 수 있다.

커피 저축법

커피와 담배 같은 기호식품을 소비하는 대신 그 값을 저금통에 넣는 방법이다. 건강하게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02 적금

백 원, 천 원 단위의 소액을 정기적으로 넣으면 약속한 금리를 주는 적금 상품이 있다. 3일 동안 정해진 소액을 입금하면 금리에 맞춰 이자를 지급하거나 6개월 동안 5천 원부터 3만 원까지, 일주일 중 3일만 선택해 그 날짜에 꼬박꼬박 입금하면 연 1.9%의 이자를 얹어주는 등 약정이 다양하다.

도움 되는 정보

카카오뱅크 저금통

저금통을 개설하고 동전 모으기를 선택하면 입출금 계좌에서 1천 원 미만의 잔돈을 자동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 단, 저금통에 쌓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만 원이다. 실제 저금통처럼 쌓여 있는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오히려 기대감을 높인다.

오늘은 얼마나? 적금(KEB 하나은행)

문자송금서비스로 매일 하루 한 번 '오늘은 얼마나

저축하기겠어요?'라는 알람 문자가 온다. 문자메시지로 송금과 조회를 진행할 수 있어 간편하다. 적금계좌 별칭과 저축 금액을 입력하면 최대 5만 원까지 매일 금액이 이체된다.

한달애풀저금통(신한은행)

수시 입출금 통장에 하루 3만 원 이내로 입금하고 월 최대 30만 원까지 자유 입금하면 한 달 중 1회 가입자가 정한 날짜에 1개월 동안 적립된 금액(이자 포함)을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03 투자

잔돈 투자도 인기다. 소액펀드 상품은 자투리 투자와 정액 투자로 나뉜다. 자투리 투자는 1천 원이나 1만 원 단위로 설정한 뒤 가령 5천 200원 상품을 구입하면 설정액 6천 원에서 남은 800원을 금융사에서 판매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액 투자는 정한 소액을 적금이나 펀드로 자동 이체한다.

도움 되는 정보

티클

카드를 쓴 뒤 1천 원 미만의 잔돈을 일주일 동안 모아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넣어 주는 잔돈 저축 앱이다. CMA 계좌 특성상 자유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저축해도 이자가 붙는다.

<https://tickleinvest.com>

IBK평생설계저금통

가입자가 미리 정한 금액이나 1만 원 미만의 잔돈을 적금이나 펀드로 자동 이체하는 상품이다.



04 기부

전통적으로 유대인 가정은 생후 8개월부터 저금통에 돈을 넣는 습관을 가르친다. 오로지 기부 용도로만 쓰인다. 유대인처럼 기부 전용 통장을 개설하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기부를 습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물품 구매 뒤 잔돈을 자연스레 기부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주기적으로 1천 원씩 정기 기부하는 등 다

양한 소액 기부 상품들이다. 1천 원 기부금의 역할은 생각보다 크다. 전 세계 후원 지역에 따라 20알의 항생제로 전달되거나 어린이 세명의 든든한 한 끼가 될 수 있다.

도움 되는 정보

셰어 더 밀(share the meal)

유엔이 만든 기부 앱이다. 터치 한 번으로 아이 한 명이 하루 동안 식사할 수 있는 500원이 기부된다.

밀알복지재단 천천클럽

월마다 정기적으로 1천 원 이상의 소액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한 뒤 자동 이체되는 방식이다.

<http://1000.miral.org>



땀 맺힌 스포츠가 건강한 깨달음을 줍니다. 경기현장 이야기로부터 조직에 도움 되는 가치를 발견합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 없기에 도전은 계속된다

프리미어리그와 개방성

글. 공규택(<경기장을 뛰쳐나온 인문학> 저자)

동화 같은 기적을 만들어낸 축구 구단이 있다. 강자들의 전쟁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을 거머쥔 '레스터시티FC'다. 능력과 기량으로 거머쥔 쟁취는 유리천장조차 깨뜨린 프리미어리그의 개방성에 기인한다. 레스터시티가 일군 기적의 승리를 통해 열린 기회가 조직에 불어넣을 긍정적 영향을 생각해본다.



모바일기로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스포츠 관련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경기!

확률 5천분의 1의 우승 쾌거 이룬 레스터시티FC 승리의 순간

2016년 5월 3일 영국의 '킹파워 스타디움'에 서는 스포츠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다. 흑자는 '기적'이라고, 흑자는 '여우군단(레스터시티 심벌) 동화'라며 탄성을 내뿜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의 시즌 우승을 두고 하는 말이다.

프리미어리그는 잉글랜드 프로축구의 최상위 1부 리그다. 하지만 레스터시티는 2부 리그에서 승격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참내기로 쟁쟁한 구단들 사이에서 2부 리그로 강등되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2015-2016시즌 초반에 돌풍을 일으킬 때만 해도 사람들은 시큰둥했다.

스타플레이어 한 명 없이 가난한 구단으로 치부되던 만년 꼴찌팀이 만들어낸 기적은 구단 창단 132년 만에 첫 우승이라는 쾌거 외에도 많은 의미를 남겼다.



스포츠 잡학사전

열린 문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축구 리그 시스템은 풋볼 피라미드로 불린다. 생태계의 먹이사슬처럼 가장 높은 곳에 최고의 리그인 프리미어리그가 있고, 2부 리그 격인 챔피언십리그, 3부, 4부 리그 등 모두 합해 무려 24개의 리그 레벨이 존재한다. 프리미어리그에는 현재 단 20개 클럽만이 뛰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맨시티, 아스널, 첼시, 토트넘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는 세계 최고의 명문 축구 클럽이다. 이들과 같은 리그에 속해 일 년 동안 대적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해당 구단으로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일이다.

그런데 풋볼 피라미드는 인접한 다른 레벨의 리그 사이에 승강제가 이뤄지는 계층적 구조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 제 아무리 프리미어리그에 속한 클럽이라도 하위권으로 처지게 되면 다음해에 2부 챔피언십 리그로 강등된다. 반대로 2부 리그에서 상위권에 들면 다음해 레벨 1의 프리미어리그로 승격된다.

현재 잉글랜드 축구 리그가 우수한 선수들을 육성·보유하는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 리그로 손꼽히게 된 원동력이 바로 상·하위 리그 간에 활발한 이동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레스터시티처럼 가난한 구단, 이름 없는 구단도 차별받지 않는 곳이 바로 프리미어리그다.

조직 속 플레이

서열에 갇힌 팀 VS. 가능성으로 열린 팀

팀원 간 또는 타부서와 치열한 경쟁을 치르는 조직에서 구성원들은 매순간 성과창출을 향한 도전에 직면한다. 이 때 각 역량이 권력과 서열에 눌려 사장되지 않도록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개방적인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프리미어리그의 레스터시티가 보여주듯 개천에서 용이 끊임없이 날아오르는 여건이라면 그에 속한 구성원은 저마다 최고 역량을 발휘하길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주니어부터 시니어 구성원까지 공평하게 열린 기회 속에서 누가 그 기회를 잡든 정당하게 승부를 가르고 결과에 순응하는 열린 자세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그 조직은 개방성을 갖는다. 권력과 서열 아닌 능력에 집중해 기회를 활짝 열어두는 프리미어리그 팀은 후보 선수도 최고의 플레이어로 키워내고 있다. 🌟

Premier League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축배의 노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축배의 노래

<라 트라비아타>

글. 정은주(클래식 음악 칼럼리스트)



#알프레도 마시자, 즐겁게 꽃 치장 예쁜 잔을 들고 잠시 동안 환락에 취하도록 / 마시자, 사랑을 복돋우는 흥겨운 전율 속에 그 눈이
내 마음에 대해 전능의 힘을 휘두르니까. / 마시자, 사랑은 입맞춤을 좀 더 뜨거운 잔에서 얻으리라.

#다함께 마시자, 사랑은 입맞춤을 좀 더 뜨거운 잔에서 얻으리라.

#비올레타 여기 모인 여러분들 속에서라면 흥겹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자는 모
두 어리석은 바보짓을 할 뿐입니다. / 즐겁시다, 순식간에 꺼지기 쉬운 것은 사랑의 기쁨, 피었다 덧없이 지는 한 송이 꽃,
두 번 다시 즐기는 일은 없어요. / 즐겁시다, 뜨겁게 흥겨운 음악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다함께 아, 즐기자, 술잔과 노래와 웃음이 밤을 아름답게 꾸민다. 이 낙원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밝아온다.

#비올레타 살아 있는 동안은 마냥 즐겁게.

#알프레도 아직 사랑해 본 적이 없어서겠죠.

#비올레타 사랑과 인연이 없는 자에겐 쓸데없는 소리예요.

#알프레도 이렇게 되는 것도 내 숙명이죠.

.....
#Alfredo Libiamo, libiamo ne'lieti calici che la bellezza infiora; e la fuggevol, fuggevol ora s'inebrii a voluttà.
/ Libiam, ne'dolci fremiti che suscita l'amore, poiché quell'occhio al core onnipotente va. / Libiamo,
amore, amor fra i calici più caldi baci avrò.

#Tutti Ah, libiam, amor fra' calici più caldi baci avrò.

#Violetta Tra voi, tra voi saprò dividere il tempo mio giocondo; tutto è follia, follia nel mondo / ciò che non è
piacer. / Godiam, fugace e rapido è il gaudio dell'amore; è un fior che nasce e muore, ne più si può
goder. / Godiam, c'invita, c'invita un fervido accento lusingh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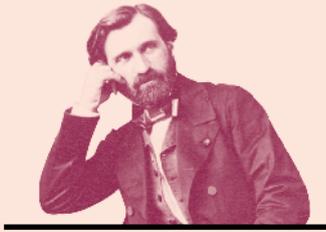
#Tutti Ah, godiamo, la tazza, la tazza e il cantico, le notti abbella e il riso; in questo, in questo paradiso ne scopra il
nuovo dì.

#Violetta La vita è nel tripudio.

#Alfredo Quando non s'ami ancora.

#Violetta Nol dite a chi l'ignora.

#Alfredo È il mio destin così.



주세페 베르디(1813~1901)
이탈리아 작곡가

26곡의 오페라 대작과 명작을 남겨 이탈리아 오페라의 위업을 완성했다. 대표 작품으로 <라 트라비아타>를 비롯 <오베르토>, <맥베드>, <리골레토>, <가면 무도회>, <돈 카를로>, <아이다>, <오텔로> 등이 꼽힌다.



<라 트라비아타> 작품 속으로

귀족청년 알프레도는 고급 화류계 여성 비올레타를 흠모해 고백한다. 불치의 병이 있음에도 자신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에게 비올레타는 마음을 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알프레도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결국 변심했다는 거짓말로 비올레타는 떠나고 알프레도는 그녀를 모욕적으로 비난한다. 뒤늦게 진실은 안 알프레도는 죽어가는 비올레타를 찾아가 속죄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의 품에서 죽게 된다.

#1 축배 들며 열망하는 사랑 노래

베르디가 18번째로 만든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이탈리아 어로 길을 잃은 여인(거리의 여인)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춘희>로 알려진 프랑스 작가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 <동백꽃 여인(1848)>이 원작이다. 총 3막(약 2시간)으로 구성된 <라 트라비아타>는 ‘축배의 노래’, ‘이상하다 이상해’, ‘그녀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등 명곡이 등장한다. 그 중 1막2장에 등장하는 ‘축배의 노래’가 대중에 많이 알려져 있다. 경쾌하고 화려한 음악적 색채로 “즐기는 것만이 인생”이라 노래하는 비올레타와 순수한 사랑에 빠진 시골의 부자청년 알베르토의 만남이 불꽃처럼 터진다. 와인잔을 손에 든 채 춤추며 부르는 이 아리아는 변화무쌍하고 호탕한 분위기가 흥겹다. 특히 주인공 비올레타 역할의 소프라노는 화려한 고음을 기술적으로 표현하는 콜로라투라 면모와 경쾌한 레지에로의 표현, 강인함까지 두루 갖춰야 하는 고난도 음악성을 요한다.

#2 혹평에서 걸작으로

베르디가 만드는 오페라는 모두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그러나 <라 트라비아타>는 예외였다. 1853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페니체 극장에서 초연된 후, 회복할 수 없는 혹평을 받았다. 파리 사교계에서 활동하던 화류계 여성을 신성한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세운 점, 심지어 그녀가 폐병으로 죽는 자극적인 무대 연출, 초연 무대에 오른 비올레타의 외모 등이 당시 거센 반발을 샀던 대표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베르디는 “이 오페라는 머지않아 세상을 휩쓸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라 트라비아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된 작품으로 기록되고 있다. 우리나라와도 각별한 인연이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공연된 오페라가 <라 트라비아타>다. 1948년 서울 명동의 시공관(현 국립극장)에서 성악가 이인선(알프레도 제르몽 역), 김자경(비올레타 발레리 역)이 열연한 기록이 전해진다. 🌻

아는 만큼 들리는 오페라 상식!

콜로라투라 (Coloratura)
웅장하면서 화려한 기교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기법

레지에로 (Leggiero)
경쾌하고도 우아하게 노래하는 기법



모든 가능성의 기본은 건강입니다. 12대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예방·관리·개선에 참고할 정보를 집약합니다.

강심장 만들기

심장질환

감수. 전재우(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무지개의원)

평생을 씬 없이 일만 하는 신체 부위가 있다. 바로 심장이다. 혈관을 통해 혈액을 신체 각 부분으로 보내는 배터리 같은 역할이다. 보건복지부가 분류한 12대 만성질환 중 겨울철 특히 주의해야 할 심장질환에 대해 살펴본다.



겨울철 위험질환

겨울철 주의해야 할 질환 중 하나가 심장질환이다. 낮은 기온으로 혈관 저항이 증가해 혈압이 상승하면서 심장과 심혈관에 무리를 준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년 중 심장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이 12월로 집계됐다. 2018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10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1위인 암에 이어 사망률이 높다. 당뇨나 비만, 고령, 고혈압으로 인한 동맥경화에 의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등으로 발전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주요 전조증상

의심해볼 수 있는 통증별 주요 질환은 다음과 같다.

- ① 수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 협심증
혈관이 좁아져 혈액이 통과하지 못하는 증상이다.
- ② 과도한 가슴 두근거림 - 부정맥
1분에 60~80회 뛰는 정상적 심장박동이 돌연 불규칙하게 뛰면 부정맥을 의심해볼 수 있다.
- ③ 바위에 짓눌린 듯한 가슴 압박감 - 심근경색
혈관이 좁아지며 나타나는 질환이 협심증이라면, 심근경색은 아예 혈관이 막힌 상태다.



검진 항목

심장질환은 일반 건강검진으로 발견하기 어려워 별도의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심전도 검사

심장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검사로 부정맥과 관상동맥질환 진단에 많이 사용된다.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

러닝머신 위를 달리며 운동 강도를 증가시켜 심전도와 혈압 변화를 관찰하는 검사다.

관상동맥 조영술

심장혈관까지 삽입한 관으로 조영제를 주입해 혈관의 협착 여부를 확인한다.

심장 초음파 검사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로 심장 구조와 기능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1월
심장
질환

2월
관절염

3월
당뇨병

4월
뇌혈관
질환

5월
악성
신생물

6월
간
질환

7월
정신·행동
장애

8월
호흡기
결핵

9월
신경계
질환

10월
갑상선
장애

11월
고혈압

12월
만성
신장병



찰떡궁합 & 상극

GOOD

녹차 & 레몬주스

심장질환 예방에 좋은 녹차 속 항산화 물질 카테킨에 레몬을 더하면 성분이 잘 분해돼 신체 흡수를 돕는다.

메밀국수 & 브로콜리

모세혈관을 강하게 만드는 메밀의 루틴 성분과 브로콜리가 만나면 체내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 산소 공격을 억제한다.

BAD

혈압강하제 & 자몽

고혈압을 치료하는 혈압강하제를 자몽과 함께 섭취하면 약이 체외로 배출되는 시간을 늦춰 급성 혈압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감기약 & 카페인

감기약에도 카페인 성분이 있어 커피·초콜릿 등 카페인 함량이 높은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두근 거림, 맥박수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추천 운동

걷기 운동

빨리 걷기, 수영, 등산, 테니스 등 심박동을 빠르게 하는 운동이 특히 도움 된다. 심박동수가 130~140을 넘지 않도록 하고 주 150~300분 이상 실시한다.

계단 오르기

매일 10분 정도 계단을 오르면 심장마비 발생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심장기능과 무릎건강을 감안해 숨이 차고 땀이 배어날 정도의 강도가 좋다.



도서 정보



<심장이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 최동주, 박성지 외

국내 저명 심장내과 전문의 13인이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증 등 심혈관질환 대표 증상과 사례를 소개하고 치료법을 제시한다.



<심장 혈관 혈압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

미나미 카즈토모

심장질환 관련 생활습관을 짚고 구체적 증상과 특징, 대처법을 담았다.



탐구영역 [새해]

생활

1. 통신 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협업으로 올 상반기 출시 예정인 이것은?

- ① 모바일 주민등록증 ② 모바일 운전면허증
- ③ 모바일 여권 ④ 모바일 건강보험증

2. 올해 신규·재발급부터 강화되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기능이 아닌 것은?



- ① 빛의 방향에 따라 태극문양 색깔 변화 *사진 : 행정안전부
- ②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양각(볼록) 인쇄
- ③ 주소 양각(볼록) 인쇄
- ④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 표시

3. 기존 녹색 표지에서 32년 만에 변경되는 여권 색을 고르시오.



- ① 노란색 ② 보라색 ③ 주황색 ④ 남색

4. 2월부터 강화되는 전동킥보드 안전기준이 아닌 것은?

- ① 킥보드 최대 무게 30kg(배터리 포함)으로 제한
- ② 등화장치(전조등, 미등, 반사경) 설치 의무
- ③ 경음기 장착 의무
- ④ 최고속도 시속 40km로 제한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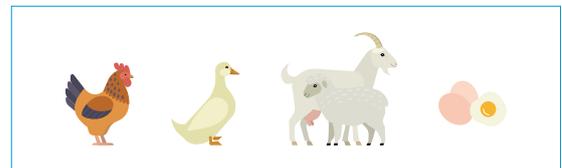
5. 2월부터 부동산 계약서에 반드시 기입돼야 할 내용은?

- ① 공인중개소 소속인력 주민등록번호
- ② 공인중개사 중개 수수료
- ③ 임차인(매수인) 대출총액
- ④ 임대인(매도인) 가족 현황

6. 부부 중 연장자 6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올 1분기부터 []로 낮아진다. 개인 신용평가 체계는 기존 등급제에서 1~[]점까지의 점수제로 바뀐다. 괄호 안을 고르시오.

- ① 40, 500 ② 45, 1000 ③ 55, 1000 ④ 55, 2000

7. 소고기·돼지고기에 적용되던 축산물 이력제가 올해부터는 종류가 확대될 예정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 ① 닭 ② 오리 ③ 염소·양 ④ 계란

건강

8. 야간·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정부 지정제에서 []로 바뀐다. 빈 칸에 들어갈 말은?

- ① 신고제
- ② 확정제
- ③ 지원제
- ④ 신청제

정답·해설

1.

②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가 도입되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QR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표출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기존 카드 형태의 실물 운전면허증과 효력이 동일해 번거롭게 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

2.

③ 주소 양각(불록) 인쇄

새로 변경되는 주민등록증 주소는 레이저로 증 내부에 새겨 위조를 방지할 예정이다.

3.

④ 남색

올해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여권은 남색이다. 신원정보면 재질을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PC)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 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어 기존 종이 기반 여권과 달리 위·변조가 어려워 보안성이 훨씬 높다.

4.

④ 최고속도 시속 40km로 제한

전동킥보드 제한속도는 시속 25km 이하다. 올해 2월부터는 안전기준이 더욱 강화돼 최대 무게 30kg 이하, 등화장치·경음기 장착이 의무화된다.

5.

② 공인중개사 중개 수수료

일명 복비라 부르는 공인중개사 중개 수수료를 기존에 잔금을 치를 때 협의해 진행했다면 2월부터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미리 기입해야 한다. 계약자 확인란도 신설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예정이다.

6.

③ 55, 1000

올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낮아져 부부 가운데 연장자가 55살 이상이면 가능해진다. 올 하반기부터는 개인 신용평가체계가 1~1000점까지 점수제로 바뀌어 금융소비자에게 신용등급이 대신 개인신용평점만을 제공하게 된다.

7.

③ 염소·양

축산물이력제는 사육>도축>포장>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소개하는 제도다. 기존에 소와 돼지로 한정됐지만 1월부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된다. 축산물이력제 앱을 다운받아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8.

*달빛어린이병원(<http://moonlight.e-gen.or.kr>)

① 신고제

정부가 지정한 병원만 시행하던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제에서 절차가 단순한 신고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달빛어린이병원 활성화를 통해 야간·휴일 응급실 이용에 대한 불편과 비용 부담 완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



터벅터벅 소도시

세계 곳곳에 오랜 가치가 살아 있습니다. '본고장'로 일컬어지는 국외 소도시 여행 정보를 제공합니다.



4박5일

보이차 여행 추천 일정

인천국제공항에서 곤명까지 비행기로 4시간 30분이지만 환승해서 1시간을 더 비행해야 서쌍관납(경홍)에 도착한다. 보이차 본고장 여행을 제대로 경험하고 싶다면 최소 4박5일 이상 일정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여행은 차가 생산되는 3월 중순이 적기다.

- Day 1 항공편 이용 → 곤명공항 도착 → 중국 국내선 환승 뒤 서쌍관납 공항 도착 → 경홍 시내 호텔
- Day 2 남나산 고차수 탐방 → 노반장 마을 탐방
- Day 3 이무 차산 탐방
- Day 4 서쌍관납 공항 → 곤명공항 도착 → 시내 관광
- Day 5 귀국

청정자연 세월 깃든

깊은 향취

[보이차 본고장]

중국 운남성 서쌍관납

글·사진. 박홍관<중국에 차마시러 가자> 저자

중국 운남성은 보이차의 뿌리를 찾아가는 길이다. 인적 드문 깊은 산속에서 문화적 공동체인 소수민족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재배한 차는 차마고도를 넘어 유럽에까지 전파됐다. 보이차가 오늘날 명차 반열에 오르게 된 원류를 따라가다 보면 운남성 태고의 멋과 향에 취하게 된다.

Travel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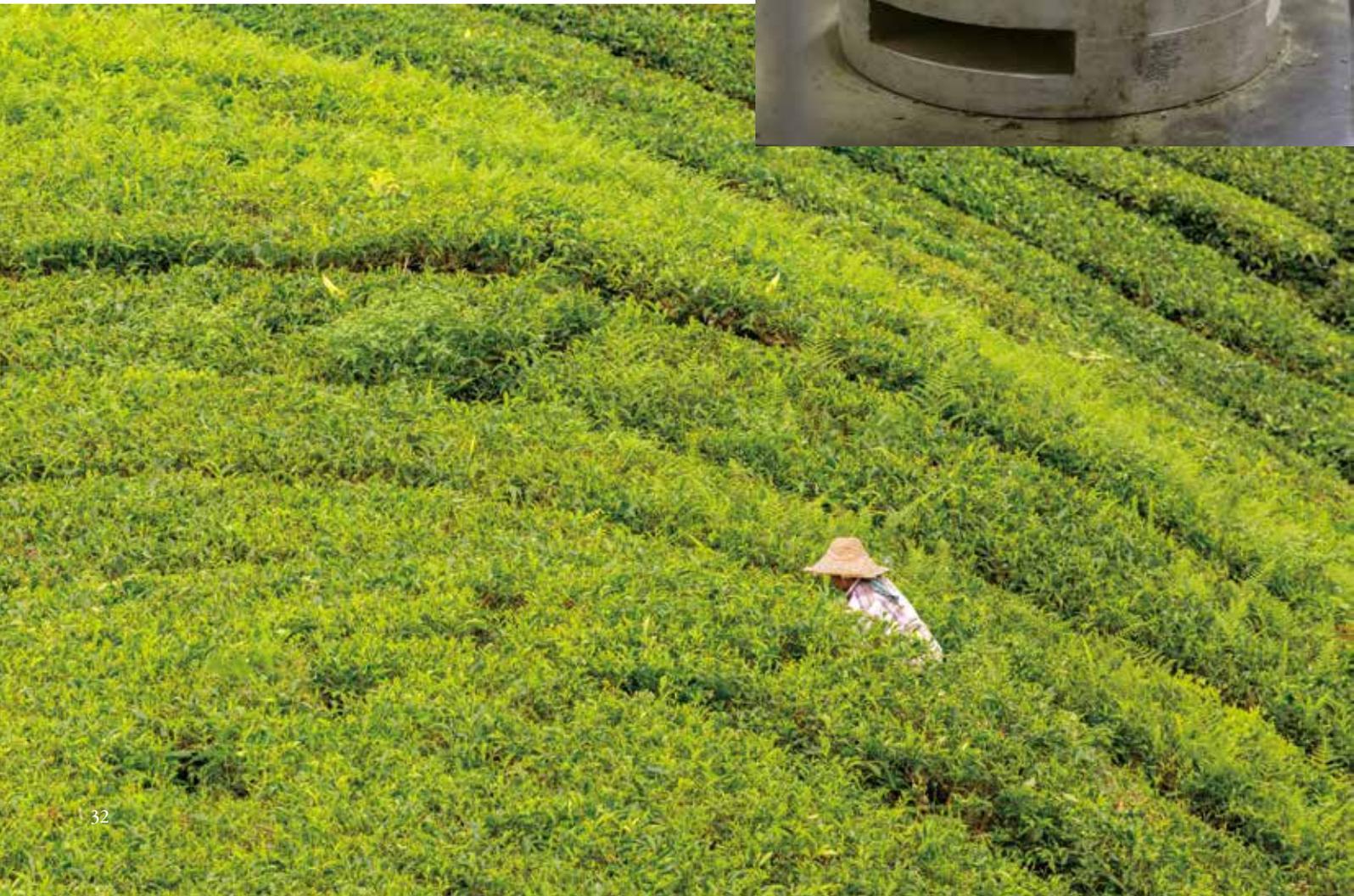
비행시간
약 4시간 30분
시차
한국보다 1시간 느림
화폐
위안(1위안 ≙ 한화 168원)
교통수단
비행기, 택시

보이차 본고장 운남성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운남성(雲南省)은 구름의 남쪽이라는 낭만적인 지명처럼 웅장한 자연을 품은 명승고적이 많다. 성도(省都)인 곤명시는 운남성 각 지역으로 이동하는 주요 비행기가 출발하는 교통 중심지답게 리장 고성을 향하거나 차마고도 트래킹을 즐기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시다.

최근에는 운남성 특산품인 보이차가 다이어트와 항암에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지면서 최고의 명차를 만나기 위해 본고장을 찾는 차인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접근이 용이한 곤명시는 차 시장을 비롯해 골동품시장과 차 박물관 등이 형성돼 있다.

보이차 산지를 가기 위해서는 곤명공항에서 1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서쌍판납(판납이라는 행정단위 12곳이 모인 전체를 지칭)의 주도인 경홍(景洪)시로 가야한다. 서쌍판납을 가로지르는 강을 중심으로 운남성 고(古) 6대 차산(혁등·망지·만전·이무·의방·유락)이 위치해 있어 보이차의 고향으로 불린다. 보이차는 교역 장소였던 보이시(普洱市)의 지명에서 유래됐지만 보이차가 생산되지는 않는다.



보이차 6대 생산지
차마고도 여행



800년 차나무 품은 남나산

경흥 시내에서 승용차로 30분만 가면 800년 된 고차수(100년 이상 된 차나무를 일컫는 말)가 있는 남나산이다. 6대 보이차 생산지 중 오래된 다원이 잘 보존된 곳이다. 차에서 내려 2~3시간 도보로 이동해야 하지만 진정한 차 마니아라면 본고장의 매력을 만끽하기에 제격인 곳이다. 2019년 봄에는 800년 고차수가 있는 곳에 나무의 주인이 차를 마실 수 있는 목조 건물을 지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남나산에서 1시간 반을 더 달리면 보이 생차로 유명한 노반장이다. 포랑산 해발 1천700m 깊은 산속에 위치한 시골마을이다. 승용차에서 내리면 노반장 마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전기차를 타고 원하는 지역까지 둘러볼 수 있다. 마을에는 130여 가구가 있는데 어떤 집이라도 들어가 차를 시음하고 구입할 수 있다.

차마고도의 시작, 이무 차산

보이차 역사를 확인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무 차산을 가야한다. 차마고도는 이곳 이무 차산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흥에서 동쪽으로 2시간 30분 정도 차로 달리면 과거의 흔적을 볼 수 있다. 6대 차산의 차들이 모두 이무 지역에 집결됐다. 이무, 의방 등 이곳에는 아직도 당시의 마방이 있고 선조들이 이어온 자료관 성격인 박물관은 물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호차급(1930년 이전 생산된 차)인 차순호, 동경호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차는 소수민족 중 포랑족이 처음 음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과거에는 포랑족이 규모가 크고 꽤 영향력이 있어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살았다. 그런데 보이차가 인기를 얻어 사람들이 고차수 산지를 찾아 나서면서 높은 산의 깊은 골짜기에 사는 소수민족의 재배 차들이 시장에서 더 큰 호응을 얻게 됐다. 이전 생산 차들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오히려 가난한 부족과 부유한 부족이 서로 바뀌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신흥 보이차 시장, 맹해

경흥 시내에서 택시로 50분 정도 이동하면 맹해(勐海)현이다. 남쪽으로 미얀마와 접경하고 있는 이곳은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신흥 보이차 시장이다. 현재 4천여 곳의 보이차 가게들이 성업 중이다. 특히 이곳에는 석가명차차엽유한공사(石佳茗茶茶葉有限公司)라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보이차 회사가 있다. 한국인 명의로 최초로 차엽유한 공사를 정식 등록한 보이차 전문 업체로서 중국인뿐 아니라 맹해현을 방문하는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이곳을 들른다. 이곳에서 보이차 여행 관련 안내를 받거나 이근 크고 작은 호텔을 추천받는 것도 좋다. 🌿

Tip

보이차 분류

중국 정부가 2003년 운남성 표준계량국을 통해 정의한 정통 보이차는 '운남 지역 대엽종 차나무 잎을 설회(발효하기 좋게 햇볕에 말리는 공정)한 원료로 만든 생차(生茶)와 숙차(熟茶)'다.

자연적으로 발효한 생차

생차는 긴압(단단하게 압축)한 뒤 자연 상태에서 발효시키는 차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천천히 숙성된다. 오래 묵힐수록 향이 깊어지지만 보관 환경에 따라 맛과 향이 다양하게 변한다.

인위적으로 발효한 숙차

인공발효 기법으로 숙성 기간을 단축시킨 차다. 찻잎을 물에 젖은 천으로 덮어 실내에 두고 온도와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45~65일 동안 숙성시킨다. 긴압 과정을 거친 뒤 3개월 동안 그대로 두고 충분히 숙성시킨다.

보이차 구입 요령

- ① 진한 검은빛이 아닌 잘 마른 나뭇잎처럼 밝은 황색을 띠는 상품
- ② 시음했을 때 화사하면서도 단맛이 느껴지는 차
- ③ 엽저(우려낸 찻잎)가 부드럽고 약하며 잘 찢어지는 것



정원의 품격

눈길 머무는 곳마다 아름다운 국내 여정이 이어집니다. 한국이 품은 정원의 고요한 풍경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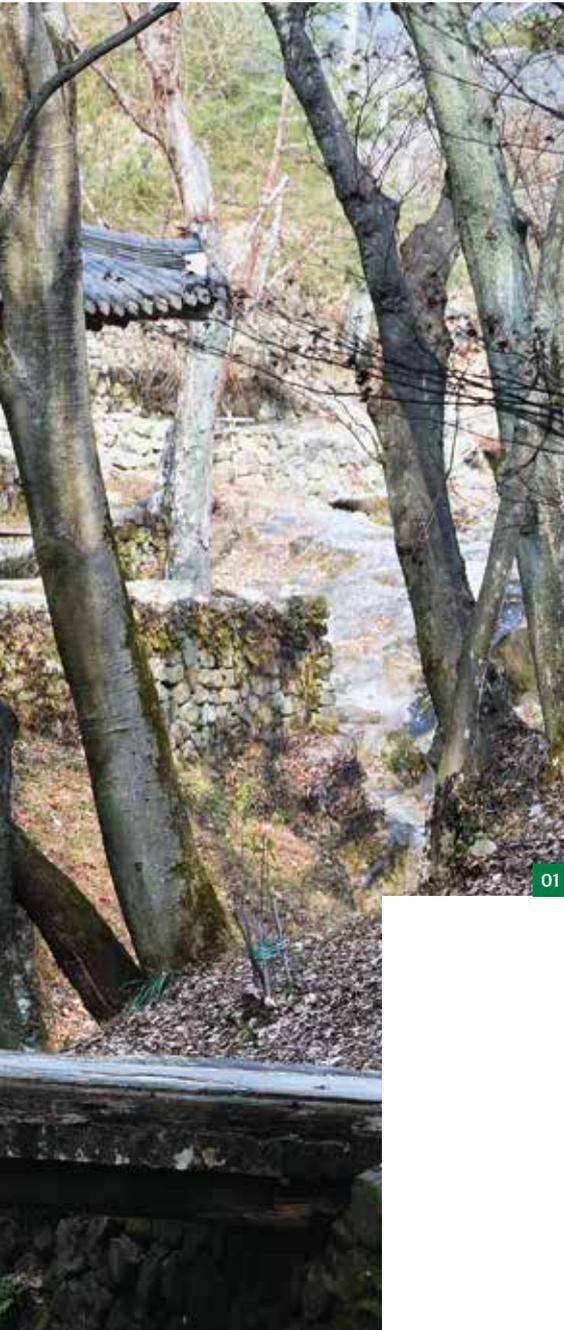


기품 있는 사색로

담양 소쇄원 글·사진·전부순

문에 창작림

소쇄원은 규모는 작지만 태초의 공간,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 되는 깊고 웅장함이 배어있다. 운치 있는 풍경과 우아한 풍류, 고요한 시정, 울곧은 절의가 담긴 공간의 완벽함은 우리나라 최고 별서로 꼽히는 이유다.



01 현재 소재원에는 대
봉대와 광풍각, 제월당이 남아있
다. 북쪽 산 사면에서 흘러온 지석
천이 담장 밑을 지나 소재원 중심
을 관통한다. 광풍각 아래 투족위
교를 건너는 길손들이 여윌롭다.

02 누정은 선비들이 모
여 시문을 짓고 노래하며 교유를
갖는 장소다. 소재원 주인이 거처
하며 책을 읽던 제월당 앞을 노부
부가 지나고 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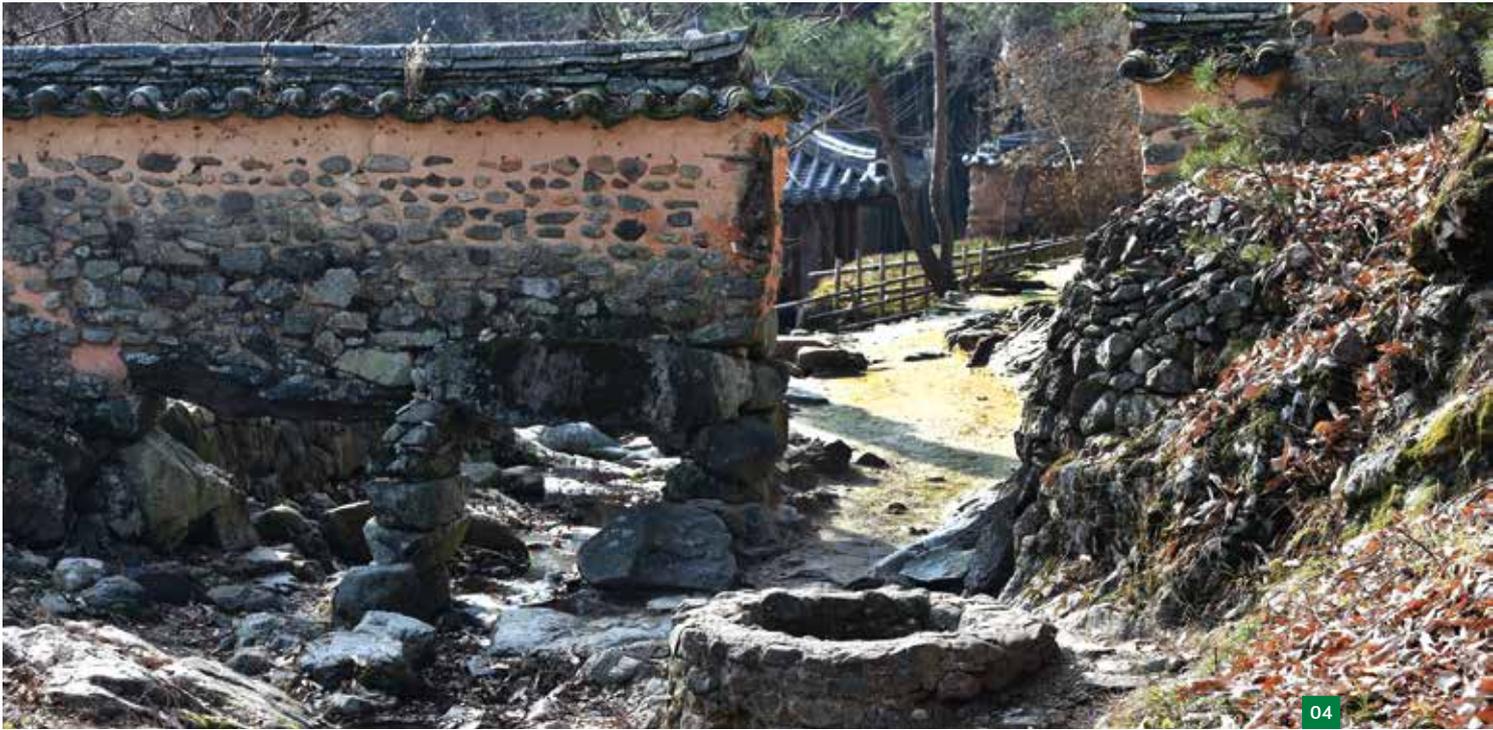
03

03 원림은 혼탁한 정치에 미련을 버리고 낙향한 선비나 숙세 영욕에 해탈한 은둔자들에게 더 없는 안식처다. 사진은 제
월당 천정에 걸린 기문이다

자연 벗 삼아 학문 논한 문예 창작 산실

전남 담양과 광주광역시 북구에 연접한 광주호 일대는 독수정을 비롯해 식영정·소재원·취가정·
면양정·환벽당·송강정 등 우리나라 최고 누정과 가사문화 유적들이 산재한 보고다. 조선시대 중
기에 지은 이들 정자는 문화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상과 역할을 갖는다. 향촌 선비들이 학문과
사상을 논의하는 장소로서 사림(士林) 형성과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퇴직 관리와 은둔 선비들이
자연과 동화되어 학문과 심신을 수양하는 장소, 즉 시상(詩想)을 끌어내고 문기(文氣)를 가다듬
는 문예 창작의 산실이었다.

여말선초(고려말 조선 초기 정치적 격동기를 이르는 용어), 성리학으로 무장한 선비들이 세속을
떠나 자연에 귀의하며 전국 명승지에 별서(別墅)를 지었다. 고려시대 이후 농장(農莊)은 왕과 세
도가가 소유한 대규모 토지에서 '관직에서 물러나 은거하는 곳'으로 '한적지거처(閑適之居處)'라
했다. 동국여지승람 누정조에 루·각·정·재·정사·대·당·헌·청·관·방(房) 같은 이름을 달고 소요·음
풍·은둔·강학 기능을 담당했는데, 그 대표격이 양산보가 담양에 조성한 소재원(瀟灑園)이다.
양산보(1503~1557)는 1519년(중종14) 기묘사화 때 스승 조광조가 죽임을 당하자 고향인 담양



04

창암촌으로 들어갔다. 소쇄정을 지은 곳은 그가 어린 시절, 우연히 들오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물줄기를 거슬러 오르니 기묘한 바위에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윽한 골짜기였다. 세상과 떨어져 조용하기 그지없어 언젠가 이곳에 집을 짓고 살겠다는 꿈을 현실로 구현한 셈이다.

소쇄란 중국 남북조시대 문인 공덕장(447~501)이 지식인의 이중적 위선을 풍자한 '북산이문(北山移文)'에 나오는 말로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다. 풍진을 피해 맑고 깨끗한 이상적 공간을 '소쇄'라 칭한 뒤 정·현·당·각을 짓고 다양한 식물을 심어 그의 나이 40세(1543년)에 간소한 원림을 완성했다. 여기에는 처가(광산김씨)와 외가(신평송씨)의 도움이 컸다. 경제적 기반이 약했던 양산보는 15개 고을 수령을 역임하며 막강한 재력을 보유한 김윤제와 관찰사를 지낸 10살 많은 외사촌 형 송순(1493~1582)의 절대적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이곳에서 지역 명사들과 교류하며 호남의 신흥 명문가로 커나갔다. 하서 김인후, 석천 임억령, 송강 정철, 제봉 고경명 등 당대 명사들은 소쇄원을 제집처럼 드나들었다. 김인후는 양산보에 대한 시 80수와 사위 양자징과 관련해 시 50수를 자신의 문집 '하서전집'에 실을 만큼 소쇄원을 자주 들러 연못의 물고기가 알아볼 정도였다는 우스갯소리도 전한다. 김인후는 소쇄원 완공을 기념해 '소쇄원 48영'도 남겼다. 양산보는 소쇄원에서 명사들과 누정가단을 형성, 주자의 삶을 좇으며 성리학 외에 소학과 사서삼경, 특히 주역을 깊이 연구했다. 도학의 개조 주돈이를 존경하여 항상 태극도설을 서재 좌우에 걸어두고 애련설을 가까이했다. 노장사상에도 심취하여 도연명의 '귀거래사'와 그의 전기인 '오류선생전' 등을 문방 좌우에 두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양산보는 세상과 담을 쌓고 깊이 은둔하려고 소쇄원을 꾸몄다 한다. 그러나 그는 평생 도학사상을 연구·실천하며 성리학을 자연 속에서 구현했다. 그는 잠시 세속을 벗어나 있었을 뿐 결코 세상을 등진 게 아니었다. 소쇄원은 은둔 공간이 아닌 창조공간이었고, 자신의 뜻을 지켜낸 산 공간이었다. 암울한 은둔자가 아니라 때를 만나지 못한 채 평생 옳게 살다간 소쇄한 처사였다.

04 소쇄원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타지만 후손들이 복원·중수하여 현재까지 15대에 걸쳐 잘 가꾸고 보존한 조선 최고 민간정원이다. 사진은 담벽을 넘어 길을 낸 오곡문으로 담을 지탱하는 편돌 아래로 계곡물이 지나며 내원과 외원을 구분하는 절묘함을 보인다



TRAVEL INFORMATION

담양 소쇄원

주소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소쇄원길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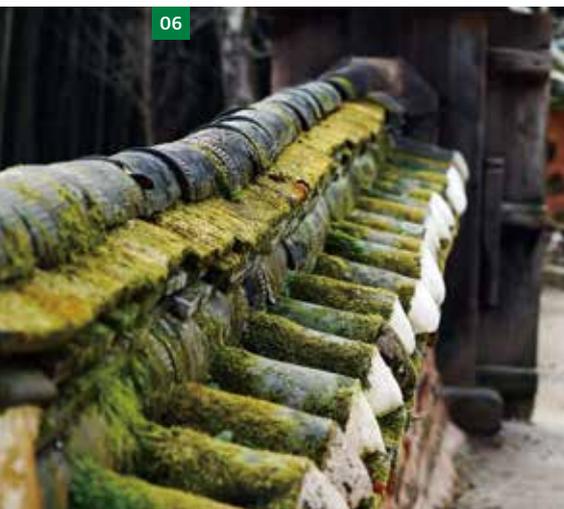
홈페이지
www.soswaewon.co.kr

05 양산보 5대손 양택지가 우암 송시열에게 제월당·광풍각과 함께 받은 '소쇄처사양공지려(瀟灑處士梁公之慮)'라는 글씨. 담을 한 단 높게 쌓아 건축학적으로 세련미를 뽐낸다

06 누정은 강이나 천을 낀 조용하고 경치 좋은 곳에 세웠다. 사진은 제월당으로 오르는 담장의 모습이다



05



06

올곧은 선비정신 갖든 청정 원림

조선선비들의 교류의 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이 탁월하고 한국 민간원림의 원형을 잘 보존하여 명승 40호로 지정된 소쇄원을 거닐어 보자.

남쪽으로 무등산이 바라보이고 뒤로는 장원봉 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 곳, 무등산 원효계곡에서 광주호로 흘러 내려오는 증암천(자미탄) 기슭의 청아한 대숲을 지나면 왼쪽 계곡에 걸쳐 있는 대나무로 만든 다리를 만난다. 몸과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믿음에 따라 외다리를 건너면 손님을 맞고 보내는 사랑방 광풍각(光風閣)이다. '물 위에 뜬 배와 같다'고 칭송한 광풍각에 서니 세속의 혼탁함이 멀어지고 고요한 선계가 투영된다. 돌을 쌓고 화초 15종과 나무 14종을 심었다는 아름다운 석가산은 어디 갔을까. 양산보가 당시 최고로 귀한 왜철쪽을 길러 사돈 김인후에게 선물로 보냈다는 기록을 더듬으며 광풍각 담장 너머 돌층계를 오른다. 왼쪽 대나무로 담을 이룬 공터는 둘째 아들 양자징이 세운 '고암정사'와 셋째 아들 양자정이 세운 서재 '부원당' 터다. 여기서 이끼 낀 작은 담으로 둘러싸인 협문을 지나치면 소쇄원에서 가장 높은 자리, 주인이 거처하며 조용히 책을 읽던 제월당(霽月堂)이다. '비가 개인 뒤 하늘의 상쾌한 달'이란 뜻의 당호는 송나라 문장가 황정견이 춘릉의 주무숙의 사람됨을 '흉회쇄락여광풍제월(胸懷灑落如光風霽月)'이라 비유한 글에서 따왔다. 가슴에 품은 맑은 뜻이 비가 개인 뒤 부는 청량한 바람과 비 갠 하늘의 상쾌한 달빛과 같다는 뜻이다. 내부 천장에는 건물을 지으며 당대 명류시인이 쓴 기문과 시문이 걸려있는데, 비교적 긴 오언이나 칠언구절로 새겼다.

제월당 좌우로는 매화와 파초를 심어 매대라 불렀다. 그 오른쪽 담벽 위에는 흰 나무판에 쓴 검은 글씨, 소쇄처사양공지려(瀟灑處士梁公之慮)가 보인다. 소쇄는 양산보의 호, 처사는 벼슬 없이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 려는 임시로 사는 오두막집이니 '벼슬 없이 초야에 묻혀 사는 양산보의 작은 보금자리'란 뜻의 문패다. 양산보 5대손 양택지가 우암 송시열에게 제월당·광풍각과 함께 받아온 글씨인데, 이 글을 넣기 위해 담을 한 단 높게 쌓아 건축학적으로 세련미를 뽐낸다.

우리는 소쇄원을 원림(園林)이라 부른다. 정원(庭園)과 비슷한 듯하나 뜻은 사뭇 다르다. 본래 정(庭)은 궁중(宮中)을 뜻했으나 후세에 들어 뜰 또는 담 아래에서 문 사이, 건물과 건물 사이로 의미가 변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공간을 규정하는 용어도 '정(庭)'이다. 이는 건 주변에 소규모 식재를 한 공간인 반면, 원(園; 동산)은 수림 위주의 자연 공간을 나타낸다. 정원이 도심 속 주택에 인위적으로 동산 분위기를 연출했다면, 원림은 교외(성밖)에서 동산과 숲 안에 건축물을 적절하게 배치했기에 정원과 원림은 정반대다.

산의 경사를 따라 쌓은 흙담을 뚫어 길을 만든 오곡문은 말 그대로 원규투류(담장밑을 통해 흐르는 물)다. 담장 아래 괴돌 구멍은 소쇄원을 관통하는 지석천 계곡물을 자연스레 흘러 보내며 담안(내원)과 담밖(외원)을 나누는 구성이 절묘하다. 오곡문 담장 아래를 흘러 와나무다리를 지난 계류는 조담(槽潭)으로 떨어지며 심장폭포가 된다. 또한 흙을 판 고목(劄木)과 바위틈으로 물을 끌어들여 두 개의 연못(상지·하지)을 이루는데, 양산보가 봉황을 맞으려 직접 쌓았다는 대봉대 아래에 자리한다. 연못은 봉황의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서, 붉은 흙담 애양단(愛陽壇)은 겨울 북풍을 막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여기서 애양은 '햇볕이 잘 드는 자리'로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뜻이다. 효심 강한 소쇄원 주인의 성정을 보여주었고, 이는 아들 양자징·양자정 형제에게 대물림되어 송순과 고경명은 '효성 지극하고 우애 깊은 사람을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시를 남기게 했다. 양산보는 평천장(平泉莊) 고사를 인용해 "소쇄원은 팔지 말고 돌 하나 나무 하나라도 소중하게 보존하리"는 유언을 남긴다. 맑고 깨끗한 선비정신을 더럽히지 말고 절의를 지키고 살라는 뜻을 남기고 1557년(명종 12) 3월 세상을 떠났다. 소쇄원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탔지만 후손들이 복원·중수해 현재까지 15대에 걸쳐 잘 보존되고 있다. 🌿



달리는 희망주유소

상생가치로 성공적인 경영에 빛나는 주유소를 찾아 협력의 시너지를 배웁니다.

경기도 양주의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굳게 지켜온 주유소가 있다. 오랜 시간 안정적인 경영으로 지역과 상생한 이곳은 2대째 운영되는 금강주유소다. 부친에 이어 경영에 뛰어든 조성철 대표가 있는 한 이곳은 늘 도전을 추구하는 스물다섯 청년 주유소다.

차곡차곡 쌓아가는 신뢰

금강주유소



왼쪽부터 서호식 판매원, 조성철 대표, 김종대 임근준 판매원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643
031-840-2255



금강주유소
조성철 대표

“오랜 베타처럼, 때론 설레는
첫 만남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을
약속합니다”

패기 넘치는 새 가족

“타주유소로 운영할 당시 에쓰-오일 지사에 문의전화를 건 적 있어요. 친절함 응대와 신속한 처리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은 경영인 조성철 대표에게 우리회사는 활력 넘치는 브랜드로 각인됐다. 눈여겨보던 차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지난해 11월 1일부로 브랜드를 전환했다. 조 대표는 고객들 반응이 가장 궁금했다. “주유소의 얼굴이 바뀌니 깜짝 놀라셨지만 이내 만족해하셨어요. 포인트카드도 신속하게 변경·발급해드렸죠. 보람 있게도 신규 고객이 늘었어요. 듣던 대로 에쓰-오일 브랜드만을 찾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조 대표가 1994년부터 부친이 운영해온 주유소 경영권을 넘겨받은 건 2007년부터다. 5년 전에는 부지확장과 리모델링으로 젊은 경영인답게 곳곳에 변화를 시도했다. 요즘 대부분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버블세차기도 조 대표는 제품 출시 초기 박람회 등을 통해 접했다. 그 뒤 양주시내 주유소로서 처음 도입했다.

“오래 된 만큼 단골 주민들이 많이 오세요. 하지만 안주하다보면 결국 도태되게 마련이죠. 주유소가 위치한 이곳만 해도 하루가 다르게 주변이 바뀌고 있거든요.”

조 대표의 설명처럼 주유소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과 신규 주택지구가 조성되고 있다. 변화에 늘 한 발 앞서 대응해온 조 대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메모하며 실행 여부를 고민한다.



금강주유소의 세 가지 힘!

1 변화

최신 설비도입부터 리모델링,
과감한 계열사 전환에 이르기까지
결단력 있게 도전

2 균형

신규세대 직원 균형을 유지하며
지역과의 상생 활동 지속

3 약속

고객 직원과의 약속은 물론
경영비전에 대한 스스로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집념

성장의 기반은 조화로움

“주유소 경영인을 항상 공부하게 하는 점이 에쓰-오일의 장점이에요. 가령 보너스카드 홈페이지만 둘러봐도 적용할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젊은 직원들 의견에도 귀 기울인다. 경영인의 시선이 아닌 현장에서 고객을 응대하며 작업하는 입장에서 개선점이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개진하기를 권한다. 지금의 금강주유소가 있기까지 묵묵히 일을 수행해온 직원들이 큰 몫을 해내고 있음을 조 대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어떤 변화에도 꾸준히 단골고객이 찾는 데는 한 자리를 오래 지킨 직원들 덕분이죠. 늘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고객들께 신뢰를 전합니다.”

안정과 변화, 신규세대 직원 등의 조화로움은 금강주유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일구는 열쇠다. 다양한 공헌활동을 통해서도 주유소와 지역의 균형적 상생을 꾀한다. 그중 하나가 6년째 지속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활동이다. 지난해에는 실종자 발견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하루를 쪼개어 성실히 살아가는 조성철 대표는 청년의 열정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금강주유소를 시험적이고도 혁신적인 주유소의 롤모델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다지면서 고객을 향한 다짐도 잊지 않는다.

“때론 오랜 베타처럼, 때론 설레는 첫 만남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을 약속합니다.” 



함께하는풍경

최선을 다하는 동료와의 시간 속에 다채롭게 펼쳐진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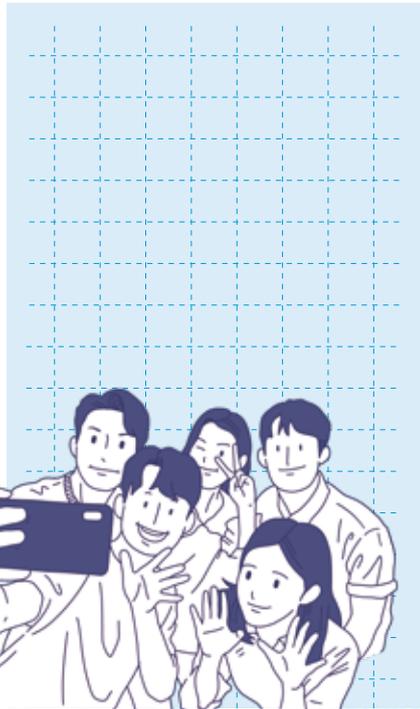


고객이 보내온 칭찬사연

우리 직원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가 '고객의소리(VOC)'를 통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이웃과 늘 함께해온 보람을 제보자의 목소리로 정리했다.

편견 허무는 우정

글. 한지연(송국클럽하우스 과장)



제가 몸담고 있는 부산 송국클럽하우스는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입니다. 에스-오일 부산지사와 2017년부터 인연을 맺어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을 함께해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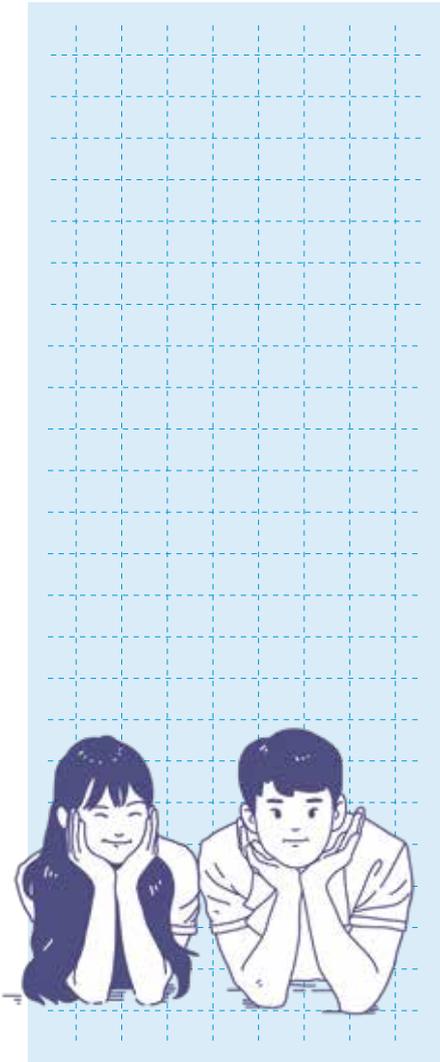
우리 시설의 다소 어색한 이름에는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부촌인 해운대에서 정신장애자를 돌보는 시설은 환영 받지 못했기에 주민들의 반발 속에 간판도 없이 지금의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저희에게 큰 힘이 돼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신지체 장애인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진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임항철 지사장님과 봉사단 간사 역의 김종훈 사우님을 비롯해 부산지사 봉사단의 깊은 관

심 속에 지난 4년이 흘렀습니다. 작년 가을에 해운대 올림픽 동산에서 사생대회를 열어 정다운 추억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존중 받는 공간 만들기' 일환으로 시설 개보수와 환경미화에 힘써 주셨습니다. 연말에는 동부지역 본부와 함께 그간 활동을 돌아보는 뜻깊은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에스-오일 임직원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에쓰-오일 햇살나눔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통해 2017년 소망재활원과 구(舊) 기계기술팀·기계부·장치부·설비관리계획팀 봉사단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 시설에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옥구슬 씨(가명) 사연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두고 시설로 들어온 옥 씨는 입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남동생의 건강 문제로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가족과 헤어져 홀로 힘들어하던 그녀에게 삼촌 같기도 하고 오빠 같기도 한 에쓰-오일 봉사단은 따뜻한 가족이 돼주었습니다. 에쓰-오일 봉사단이 올 때면 그들을 거두고 함박웃음으로 맞이합니다. 옥 씨와 에쓰-오일 봉사단을 보며 우리가 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도 주눅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밖에 없는 동생과 함께 살고 싶은 집'을 꿈꿉니다.

이렇듯 소망재활원과 에쓰-오일 햇살나눔의 만남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해주신 봉사단원 분들께 소망재활원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삼촌처럼 때론 오빠처럼



글. 김선대(소망재활원 팀장)

(물불 넘나드는 불굴의 헌신)

소방·해양경찰 영웅 시상



우리회사가 12월 11일 소방 영웅 시상식을 열고, 무한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고귀한 활동을 펼친 소방관 총8명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최고영웅 소방관'에 선정된 전준영 소방장(중앙119구조본부)에게 상패와 상금 2천만 원을 전달하고, 박진자 소방위(서울 송파소방서) 등 '영웅 소방관' 7명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 1천만 원을 시상했다.

우리회사는 소방영웅지킴이 캠페인을 통해 2006년부터 14년 동안 순직소방관 유가족 위로금 지원, 순직소방관 유자녀 학자금 지원, 부상소방관 격려금 지원, 소방관부부 휴(休) 캠프, 영웅소방관 시상 등 체계적 프로그램으로 후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최고영웅 소방관

전준영 소방장(중앙119구조본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허블레니아호 침몰 현장에 신속대응팀(구조)으로 급파돼 약 1개월 동안 수중 및 수상(보트)수색, 헬기수색, 육상수색 등을 통해 사체 17구를 수습하는데 크게 기여함

영웅 소방관

박진자 소방위(서울 송파소방서) 구급대원과 진압대원들에 전문 심폐소생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전국 최초로 심정지 환자 등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영상 응급처치 시스템'을 도입함

정종문 소방경(경기 용인소방서) 대형 쇼핑몰 공사장 화재 현장에 신속히 대응해 추락한 근로를 구조하고 1천여 명 대피를 유도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함

김숙현 소방경(서울 동작소방서) 아파트의 6층 화재 현장에서 상층부에 고립된 11명을 사망자 없이 전원 구조하는데 기여함

마기완 소방경(강원소방본부) 산불로부터 국가중요시설 탄약고를 사수해 대형 폭발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 여타 산불 사고에서도 적극적인 진화작업을 통해 민가 피해를 방지함

정기백 소방위(울산 북부소방서) 케미컬운반선에서 발생한 선박화재현장에 출동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크게 기여함

정양기 소방위(전북 전주완산소방서) 숙박시설과 의류매장 등 화재발생 현장에서 정확하고 안전한 대응활동을 펼쳐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에 기여함

홍성진 소방장(부산 부산진소방서) 숙박시설 화재현장에 진입해 2층부터 옥상까지 인명검색을 하며 대형 인명사고 방지에 크게 기여함



12월 23일에는 해양경찰 영웅 시상식을 열고 '최고영웅 해양경찰'에 선정된 이성희 경위(포항해양경찰서)에게 상패와 상금 2천만 원을, 천상용 경위(부산해양경찰서) 등 '영웅 해양경찰' 5명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 1천만 원을 시상했다.

우리회사는 선박 구조와 해양 오염 방지, 불법 조업 어선 단속 등 최일선 해상에서 대한민국 영토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해양경찰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2013년 해양경찰청과 '해경영웅 지킴이' 협약을 맺고 모범 해양경찰관 표창, 자녀 장학금 지원 등 후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



최고영웅 해양경찰

이성희 경위(동해지방해경청 포항해양경찰서) 항해 중 침수되고 있던 모터보트 승선원 9명을 구조하고, 갯바위 고립자와 해상에 표류 중인 레저보트 승선원, 익수자 등을 신속한 대처로 구조함

영웅 해양경찰

김진태 경사(본청 수사정보국 형사과) 전국 대형선박에서 해상용 면세유를 빼돌린 범죄자를 비롯해 폐기물을 수집해 바지선에 불법으로 선적한 범죄일당을 검거함

천상용 경위(남해지방해경청 부산해양경찰서) 해양경찰 최초로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 구조벨을 설치해 사고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함

이영주 경장(중앙해양특수구조단 서해해양특수구조대) 침수 선박 선원 1명을 헬기로 구조했으며 전복된 선박 고립자 1명을 잠수해 구조함. 침수한 여객선의 승객 45명을 인근 섬으로 전원 하선 시켜 구조함

박철수 경사(남해지방해경청 울산해양경찰서) 케미컬운반선에서 원인미상의 초대형 폭발·화재발생 및 함께 계류중인 유조선의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승선원 46명 전원을 구조함

장현철 경위(서해지방해경청 목포항공대, 조종사) 야간 저고도 제자리비행의 위험성을 극복하고 해상 전복 사고 선박 내 생존자 2명 구조 및 응급환자 2명 인수 뒤 안전 후송함



(미래 밝히는 기초과학

과학문화재단
우수학위논문상·차세대과학자상 시상

우수학위 논문상

수학 부문

김정호(대상·서울대)
권예현(우수상·고등과학원)

물리학 부문

이명재(대상·서울대)
이승훈(우수상·부경대)

화학 부문

박윤수(대상·한국과학기술원)
박정은(우수상·서울대)

생명과학 부문

백진희(대상·한국과학기술원)
류희주(우수상·서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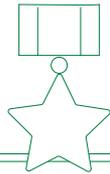
화학·재료공학 부문

권기창(대상·연세대)
최윤석(우수상·한국과학기술원)

차세대 과학자상

신용일

(물리 부문·서울대)
김수민
(화학 부문·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원일
(생리의학 부문·한국과학기술원)
박재형
(화학·재료공학 부문·성균관대)
서장원
(에너지 부문·한국화학연구원)
윤성의
(IT 부문·한국과학기술원)



제9회 우수학위논문상·제1회 차세대과학자상 시상식이 지난해 12월 17일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우리 과학문화재단이 후원한 이 시상에서 수학·물리학·화학·생명과학·화학 및 재료 공학 분야에 걸쳐 우수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한 박사급 연구자 10명과 지도교수 10명이 연구지원금 1억1천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와 함께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생리의학, 에너지, IT 등 차세대 과학자 6명에 게도 연구지원금 2억4천만 원이 전달됐다. 우리회사는 2011년에 과학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학술 재단인 '에스-오일과학문화재단'을 설립해 기초과학·공학 분야의 과학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대학총장협회 주관 하에 기초과학·공학 5개 분야의 우수한 박사학위 논문을 살펴 연구자와 지도교수를 지원해온 가운데, 2019년에는 차세대 과학자상을 신설해 6개 분야의 신진과학자(만 45세 이하)에게 연구지원금을 제공했다. 



NEWS

전사 경영설명회

2019년 하반기 경영설명회가 12월 12일 본사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2016년부터 지속해온 경영설명회는 경영층과 직원 간 대면소통으로 경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목표 달성을 향한 공감대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기회로 자리잡았다. 온산공장과 지역본부·지사, 저유소, 기술개발센터(S-OIL TS&D Center) 등 전 사업장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된 가운데 경영 실적과 중장기 사업 계획 및 추진 일정, 사업전망 등을 살폈다. 특히 경영층과의 대화 시간에 후세인 알 카타니 CEO를 포함한 경영위원회 위원들은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지속 성장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이웃돕기 성금 20억 기부

우리회사가 12월 1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시 중구 세종대로)에 20억 원을 기탁했다. 이웃돕기 성금으로 동참한 이번 나눔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펼치는 희망2020나눔 캠페인의 일환이다. 기부금은 홀몸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인다.

희망2020나눔 캠페인의 일환이다. 기부금은 홀몸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인다.



희망충전소·구도일트리 설치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회사가 12월 20~31일 서울 코엑스 윈터페스티벌과 연계해 '에스-오일 희망충전소'를 열고 구도일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와 체험 이벤트를 제공했다. 주유소 형태의 공연 무대를 비롯해 구도일 대형 인형

과 조형물, 트리 등을 설치한 데 이어 콘서트, 토크쇼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특히 12월 28일에는 '오라차차 댄스 이벤트'를 열어 사이판 왕복항공권, 주유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한편 코레일과 함께 1월 10일까지 동대구·울산

KTX역에 구도일패밀리 트리를 설치한 가운데, 동대구역에서는 티웨이 왕복항공권, 캐릭터상품 등을 제공하는 '구도일패밀리 트리 SNS 인증 이벤트'를 열어 고객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윤활유 수출 대리점 계약체결식·간담회
우리회사가 12월 13일 본사 대강당에서 우리 윤활유 제품 수출을 돕는 대리점을 초청한 가운데 계약체결식·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아시아 지역을 비롯해 중동과 남미, 태평양 군도 국가를 포함한 50여 개국에 걸쳐 우리 윤활유 제품 수출로 협업하는 9개 대리점 관계자와 우리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대리점 대표자들은 자체 리뷰를 통해 지난해 성과를 살피고 올해 비전을 공유하며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또한 우수 대리점 시상으로 동기를 강화하는 한편 계약 체결식을 계기로 한층 적극적인 세계시장 공략을 다짐했다.

01

JANUARY
2020

【 팀리더 임명·보직변경 】

1.6

배상철(1급.정유생산부장)→정유/유회공정팀리더
 양영진(1급.정유/유회공정팀리더)→정유2팀리더
 박용주(1급.유회생산부장)→유회팀리더
 김윤하(1급.탈황1부장)→탈황1팀리더
 정성근(1급.HYC부장)→정유3팀리더
 한성(1급.FCC1부장)→RFCC1팀리더
 공영규(1급.탈황2부장)→탈황2팀리더
 성경찬(1급.FCC2부장)→RFCC2팀리더
 황재영(1급.탈황3부장)→ERU팀리더
 허경환(1급.아로마틱생산1부장)→아로마틱1팀리더
 이용춘(1급.아로마틱생산2부장)→아로마틱2팀리더
 장성철(1급.PO/MTBE생산부장)→PO/MTBE팀리더
 유대중(1급.PP생산부장)→PP팀리더
 조영진(1급.제품운영부장)→제품운영1팀리더
 송성국(1급.제품출하부장)→제품출하팀리더
 남호철(1급.기계부장)→기계1팀리더
 김형철(1급.계전부장)→계기1팀리더
 김승학(1급.장치부장)→장치1팀리더
 정재훈(1급.장치설계팀리더)→장치2팀리더
 이명균(1급.기계설계팀리더)→Defect Elimination팀리더
 김규은(2급.기계기술리더 대행)→기계2팀리더
 김호정(Director.홍보팀리더)→구매팀리더
 박병인(1급.전사수급최적화팀리더)→경영개선팀리더
 서경섭(1급.변화혁신추진팀리더)→환경팀리더
 노시경(1급.광고팀리더)→홍보팀리더
 윤종원(1급.IT보안팀리더)→Cyber보안팀리더
 박이훈(1급.서부네트워크관리팀리더)→목포지사장
 이성제(1급.특수제품영업팀리더)→법인영업팀 특수
 제품영업파트리더
 장영민(1급.중부네트워크관리팀리더)→중부영업지
 원팀 중부네트워크관리파트리더
 임현조(1급.동부네트워크관리팀리더)→동부영업지
 원팀 동부네트워크관리파트리더
 이병달(1급.목포지사장)→서부영업지원팀 서부네트
 워크관리파트리더
 이성근(1급.회계팀리더)→신용관리팀리더
 김경운(1급.신용관리팀리더)→무역세무팀리더
 이계훈(1급.무역세무팀리더)→관리회계팀리더
 정연태(1급.관리회계팀리더)→회계팀리더
 송광오(1급.동력부장)→화학생산본부(Safety Group)

김상배(1급.계전기술팀리더)→정비계획팀
 최창훈(1급.아로마틱공정팀리더)→시설투자기획팀
 장재명(1급.구매팀리더)→구매팀
 최재철(1급.환경팀리더)→환경팀
 전면호(2급.정유/유회공정팀)→정유1팀리더
 정용훈(2급.동력부 동력1과장)→동력팀리더
 양태성(2급.HYC부 HYC과장)→Hydrocracker팀리더
 이준찬(2급.HYC부 VDU과장)→VDU팀리더
 박석진(2급.FCC1부 MHC과장)→MHC팀리더
 김호원(2급.FCC1부 Alkylation1과장)→
 Alkylation1팀리더
 이성수(2급.탈황3부 탈황3과장)→탈황3팀리더
 홍승완(2급.FCC2공정팀)→Alkylation2팀리더
 조은찬(2급.아로마틱생산2부 PX생산2과장)→
 아로마틱공정팀리더
 최동범(2급.PP생산부 PP생산과장)→PX1팀리더
 김용기(2급.아로마틱생산2부 아로마틱생산2과
 장)→PX2팀리더
 조영빈(2급.PO/MTBE생산부 동력7과장)→올레핀송
 유/동력팀리더
 김재규(2급.제품운영부 송유공정과장)→제품운영2
 팀리더
 김도형(2급.제품출하부 해상출하과장)→제품운영3
 팀리더
 서철진(2급.계전부 전기과장)→계기2팀리더
 김동구(2급.계전설계팀)→전기팀리더
 김형기(2급.장치설계팀)→기계설계팀리더
 박재형(2급.탈황1부 탈황1과장)→공정혁신팀리더

12.24

이영호(1급.프로젝트구매부문장 보좌역)→프로젝트
 구매팀리더
 이동범(1급.구매부문장 보좌역)→프로젝트구매팀

12.23

정지영(대리.Chemical기술개발기획팀)→교분자제
 품개발팀

12.16

추영준(4급.기계기술팀)·한도원(4급.장치설계팀)→
 프로젝트기술1팀
 이동화(4급.계전설계팀)·김상일(4급.설비관리계획
 팀)→프로젝트기술2팀

12.13

조연국(계장.FCC1부 FCC1과 선임계장)→정유생산
 본부(Safety Group) Safety Foreman
 박홍양(계장.FCC1부 FCC1과 교대계장)→정유생산
 본부(Safety Group)
 황준하(과장.FCC1부 FCC1과 교대계장)→FCC1부
 FCC1과 선임계장
 윤왕근·김원식(계장.FCC1부 FCC1과)→FCC1부 FCC1
 과 교대계장
 이병기(계장.탈황2부 유회2과 선임계장)→탈황2부
 유회2과
 이완희(계장.탈황2부 유회2과 교대계장)→탈황2부
 유회2과 선임계장
 진대중(계장.탈황2부 유회2과)→탈황2부 유회2과
 교대계장

1.2

전태준(3급.올레핀영업팀)→프로젝트구매팀

1.6

유신열(2급.PP생산부 PP포장/출하과장)→PP팀 PP
 출하파트리더
 이효석(2급.제품운영부 제품운영1과장)→제품운영1
 팀 송유공정파트리더
 서형희(2급.제품출하부 항무방재과장)→제품출하팀
 항무방재파트리더
 강동일(2급.품질관리팀)→품질관리팀 정유/유회품
 질파트리더
 전세영(3급.제품운영부 환경운영과장)→제품운영3
 팀 환경운영파트리더(대행)
 김동철(3급.검사기술팀)→검사진단팀 기획검사파트
 리더(대행)
 고유석(2급.LPG팀)→서부LPG판매파트리더
 김영수(1급.HYC공정장 보좌역)→정유생산본부
 (Safety Group)
 최연대(3급.정유생산부 정유2과장)·최원철(4급.유회
 생산부 유회생산2과장 대행)·최유섭(2급.동력부
 동력3과장)→정유/유회공정팀
 김차룡(2급.HYC부 정유3과장)·이영걸(3급.탈황1부
 동력2과장)→Hydrocracker공정팀
 권길상(2급.FCC1부 FCC1과장)·이광동(4급.탈황2부
 동력4과장 대행)→RFCC1공정팀
 신봉수(2급.FCC2부 FCC2과장)·이인석(3급.FCC2부

ERU과장)·서희영(2급.FCC2부 Alkylation과장)·김홍민(3급.탈황3부 동력6과장)→RFCC2공정팀
 최영철(3급.아로마틱생산1부 아로마틱생산1과장)·조현태(2급.아로마틱생산2부 동력5과장)→아로마틱공정팀
 김정훈(3급.PO/MTBE생산부 PO생산과장)·이정호(3급.PO/MTBE생산부 MTBE생산과장)·이태왕(4급.PP생산부 PP생산과)→올레핀공정팀
 박장호(3급.건설팀)·장상규(3급.계전기술팀)→계전설계팀
 이재현(2급.제품운영부 제품운영2과장)·이정호(3급.제품출하부 육상출하과장)→제품운영1팀
 박갑동(3급.탈황1부 유황1과장)→생산최적화팀
 류희조(3급.공정Upgrading추진부 공정혁신1과장)·백승훈(3급.정유생산부 정유1과장)·김주현(3급.유회생산부 유회생산1과장)·박종호(4급.탈황2부 유황2과장 대행)→공정혁신팀
 박주용(2급.기계부 기계1과장)·김대겸(3급.장치부 장치1과장)·전동훈(3급.기계부 기계3과장)→기계설계팀
 이동화(3급.계전부 기계1과장)·한기원(2급.계전부 기계3과장)·박장호(3급.건설팀)·장상규(3급.계전기술팀)→계전설계팀
 강신훈(2급.기계부 기계2과장)·이준희(2급.계전부 기계2과장)·이정욱(2급.계전설계팀)·진재환(3급.계전설계팀)·김성민(3급.검사진단팀)·안인기(4급.계전설계팀)·김영덕(4급.기계설계팀)·이상용(4급.올레핀공정팀)→Defect Elimination팀
 김정하(3급.장치부 장치2과장)→검사기술팀
 이재환(3급.아로마틱생산1부 PX생산1과장)·박승희(3급.탈황2부 탈황2과장)→시설투자기획팀
 송원우(2급.공정자동화팀)→공정혁신팀
 하재언(4급.정유/유회공정팀)→공정자동화팀
 이혁창(2급.계전설계팀)·김진원(2급.장치설계팀)·이주영(3급.장치설계팀)·김석일(4급.계전설계팀)·김승수·이형준(4급.장치설계팀)·정광운(5급.계전설계팀)·김민석(대리.기계설계팀)→투자공사팀
 홍승주(2급.원유팀)·박상찬(3급.원유팀)·조성민(4급.원유팀)·노종석(4급.전사수급최적화팀)→수급전략팀
 유영준(3급.원유운영팀)→원유팀
 이상준·김진욱(2급.전사수급최적화팀)·정낙림(3급.전사수급최적화팀)·이세훈(4급.전사수급최적화

팀)·전형만(5급.전사수급최적화팀)→경영개선팀
 김유라(3급.전사수급최적화팀)→원유운영팀
 김현우(2급.경영기획팀)·정국진(2급.변화혁신추진팀)·강현욱(3급.변화혁신추진팀)→지속가능경영팀
 우형진(4급.변화혁신추진팀)→인력개발팀
 김경호·황은철(2급.IT보안팀)→Cyber보안팀
 임동연·이상휘·송경란(2급.광고팀)·함상욱(3급.광고팀)·전부순(4급.광고팀)·김기희(OS2급.광고팀)→홍보팀
 김종택(3급.중부네트워크관리팀)·정재원(3급.동부네트워크관리팀)·양백식(3급.서부네트워크관리팀)→직영네트워크관리팀
 김영곤(2급.서부네트워크관리팀-광주지사 파견)·이용문(OS M급.동부네트워크관리팀)→네트워크강화팀
 이동영(2급.특수제품영업팀)→법인영업팀
 공진현(2급.특수제품영업팀)·김은범(3급.특수제품영업팀)→법인영업팀 특수제품영업파트
 이성곤(2급.LPG팀-서부영업지원팀 파견)→LPG팀
 박지영(4급.중부네트워크관리팀)→중부영업지원팀
 송학석·한인수·김영식(2급.중부네트워크관리팀)·이윤희(OS1급.중부네트워크관리팀)→중부영업지원팀 중부네트워크관리파트
 이성택(2급.동부네트워크관리팀)→동부영업지원팀
 김찬주·김석연(2급.동부네트워크관리팀)·최정희(OS M급.동부네트워크관리팀)→동부영업지원팀 동부네트워크관리파트
 김기환(2급.서부네트워크관리팀)·정재용(3급.서부네트워크관리팀-광주지사 파견)→서부영업지원팀 서부네트워크관리파트
 이승섭(2급.서부네트워크관리팀)→서부영업지원팀 서부네트워크관리파트(광주지사 파견)
 서원영(2급.동부네트워크관리팀-부산지사 파견)→부산지사
 반철희(2급.중부네트워크관리팀)→강북지사
 정재학(2급.청주지사)→아산지사
 손대겸(3급.서부네트워크관리팀)→청주지사
 김대영(3급.아산지사)→전주지사
 이장재(2급.Olefin Downstream사업기획팀)→올레핀영업팀
 안정원(과장.제품운영부 제품운영1과 선임계장)→제품운영1팀 선임계장
 김성국·이상복·이호영·손영상(계장.제품운영부 제품운영1과 교대계장)→제품운영1팀 교대계장

정병일·서영식·조영래·송태민·강성훈·김동우·조경환·박정철·백준기·안진우·구성욱·표상현·정경원·최성욱(계장.제품운영부 제품운영1과)·최희표(대리.제품운영부 제품운영1과)·임형섭·이규영·김민석·이재성·장성욱·지민규·정찬형·원기연·조지현(주임.제품운영부 제품운영1과)·김희수·윤현수·김선길(운전원.제품운영부 제품운영1과)·김현호(대리.제품출하부 해상출하과)→제품운영1팀
 노재규(계장.제품운영부 제품운영1과)→제품운영2팀 선임계장
 전신열·황상득·이용인·이승훈(계장.제품운영부 제품운영1과 교대계장)→제품운영2팀 교대계장
 김기현·김홍일·이재환·이종명·성상중·김재교·윤기영·이정훈·권재현·강성우·최동훈·강성호·송경현(계장.제품운영부 제품운영1과)·이정민·황용호·류관석·곽상모·최치연·손영덕(주임.제품운영부 제품운영1과)·조수범·신병규·석태희·이루다·함승우·양세훈(운전원.제품운영부 제품운영1과)·전유택·박용주·피석우(계장.제품운영부 제품운영2과)·이성진·김민준(주임.제품운영부 제품운영2과)→제품운영2팀
 김동민·임정택·오세근·유재식·장봉석·이병록·정필규(계장.기계기술팀)·김대업(주임.기계기술팀)·진하준·문기동(운전원.기계기술팀)·정동선(과장.계전기술팀)·김용기·박춘택(계장.계전기술팀)·박성철·김지윤(주임.계전기술팀)·김덕원·이재영(운전원.계전기술팀)→정비계획팀
 권병환(계장.기계부 기계1과 선임계장)·이주협·고택봉(계장.기계부 기계3과 선임계장)→기계팀 선임계장
 김동길·김윤배·강성훈·강일식(계장.기계부 기계1과)·오세안(주임.기계부 기계1과)·강승훈·강채현(운전원.기계부 기계1과)·공경배·황희철·정주현·이형민·김창한(계장.기계부 기계3과)·김항민·손현국·박민·박정훈(주임.기계부 기계3과)·최준섭·최수진·박세원(운전원.기계부 기계3과)→기계1팀
 이종관·이차호(계장.기계부 기계2과 선임계장)·조윤래(계장.기계부 기계1과 선임계장)→기계2팀 선임계장
 윤광호·전기열·송성태·김중현·신용준·서효성·이창수(계장.기계부 기계2과)·이성희·박한광(계장.기계부 기계1과)·신우승·정도현·신대광·박동일(주임.기계부 기계2과)·배성학·이상호·김용수(주임.기계부 기계1과)·이원중·김진수·김효성·이재은(운전원.기계부 기계2과)·박경목·최성진(운전원.기계부 기계1과)→기계2팀

엄달하·김종철·이재욱(계장.계전부 계기1과 선임계장)
장·이성철(과장.계전부 계기3과 선임계장)→계기1
팀 선임계장

김성은·정송훈·강정순·방성민·한일광·성상현(계
장.계전부 계기1과)·구태석·김무진·김지환·이봉주·
정상혁·추성빈·권태민(주임.계전부 계기1과)·안성
찬·정연정·오성일·이대일·김병국·도현우·유태원(운
전원.계전부 계기1과)·이상무·이원호(계장.계전부
계기3과)·최홍석(대리.계전부 계전3과)·김창한(주
임.계전부 계기3과)·권오학·김종한(운전원.계전부
계기3과)→계기1팀

정정태·권영철·이재홍(계장.계전부 계기2과 선임계
장)·이한진(계장.계전부 계기3과 선임계장)→계기2
팀 선임계장

윤종필·안인출·신창훈·최병욱·최종규·정성길·심관
식·조익태·윤대정(계장.계전부 계기2과)·김대호(대
리.계전부 계기2과)·조재민·이민영·이창안(주임.계
전부 계기2과)·김명준·진동현·윤주영·차정후·송수
영·장승목·김민수·정진우(운전원.계전부 계기2과)·
조영식(계장.계전부 계기3과)·하창원(대리.계전부
계기3과)·반재환·최주환(주임.계전부 계기3과)·강노
정(운전원.계전부 계기3과)→계기2팀

박형률(계장.설비관리계획팀 선임계장)→장치2팀
선임계장

변석호(대리.설비관리계획팀)·박동수·김대화·왕희
석(운전원.설비관리계획팀)→장치2팀

이현욱(주임.장치부 장치1과)·장병훈(운전원.장치부
장치1과)→연차보수팀

최재수·정진호(계장.정유생산본부 Safety Group
Safety Staff)→정유생산본부(Safety Group Safety
Foreman)

박기철(과장.화학생산본부 Safety Group Safety
Staff)·박평수·이동석(계장.화학생산본부 Safety
Group Safety Staff)→화학생산본부(Safety Group
Safety Foreman)

홍해영(계장.품질관리팀)→정유생산본부(Safety
Group)

송유호(계장.품질관리팀)→화학생산본부(Safety
Group)

류현철·하태길(계장.품질관리팀)→안전대응팀

최기봉·조정윤(주임.품질관리팀)→RFCC1팀

김시진(주임.품질관리팀)→MHC팀

곽진섭(주임.품질관리팀)→RFCC2팀

1.13

이창하(4급.경영기획팀)→유희운영팀

【 해외유학 파견 복귀 】

1.6

김태균(3급.인력개발팀 부)→신규사업팀
박지훈(3급.인력개발팀 부)→Defect Elimination팀
이준상(4급.인력개발팀 부)→TC2C추진팀
백승민(3급.TC2C추진팀)→생산최적화팀

【 관계사 파견 】

1.1

양현준(1급.싱가폴지사장)·서형주(2급.싱가폴지사)·
최기진(3급.싱가폴지사)·손원진(2급.유희마케팅전
략팀)·이쉬운(4급.기유마케팅팀)·이성훈(3급.세무
팀)→S-OIL Singapore Pte. Ltd. 파견(당사 휴직)

【 2020년 대졸 신입사원 】

1.2

강형구·고영창·고태식·김건영·김동혁·김용현·김우
현·김운혁·김윤정·김유호·김지영·김태호·김현숙·나
호인·민태영·박건주·박준식·박평화·신준호·오승민·
오승택·윤민영·윤형기·이경민·이다슬·이동훈·이원
도·이재승·이정환·이창현·이태호·이한별·이향현·장
정현·정대권·정상익·조진현·진성원·최원석·현종민
(5급.인력개발팀 부)

【 정년퇴직 】

12.31

조규팔(1급.국내영업본부장 보좌역)

【 결혼 】

12.22 이승현(유희생산1과)

12.28 이동구(구미지사)
김용경(영천저유소) 아들
정윤성(탈황1과)

1.4 최승필(화학생산본부) 딸
김태준(총무팀)
이영준(동력2과)

배지현(FCC1공정팀)
1.11 박세훈(HYC공정팀)
홍태관(VDU과)

【 부음 】

12.6 최현석(동력5과) 외조모
이승호(프로젝트원가관리팀) 빙모

12.9 황동오(해상출하과) 외조부

12.11 김태희(FCC1과) 모친

12.12 김원만(육상출하과) 모친

12.14 신병규(제품운영1과) 조모

12.16 박종인(유희생산1과) 조모

12.17 김승현(환경운영과) 외조모
신원성(탈황3과) 모친

12.18 박기홍(품질관리팀) 부친
주제일(장치2과) 빙부
이성택(동부네트워킹관리팀) 빙모

12.19 전영민(Alkylation1과) 조모

12.20 김성수(PO생산과) 빙모

12.22 장민순(강북지사) 부친

12.24 전성호(아로마틱생산1과) 빙모

12.31 김홍우(자금운영팀) 부친

1.5 임종익(MHC팀) 모친

김동휘(원유용선팀) 조부

1.6 김창식(MHC팀) 부친

박정훈(PO/MTBE팀) 조모



독자마당

사내보 <S-OIL>은 사우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지면에 참여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문의: sabo@s-oil.com



<고전 속 핵심가치> 나눔 - 여민동락(與民同樂)
백성과 나누는 지혜로 길이 존경받는
세종대왕처럼 주위를 돌아보는 따듯함으로
추운 겨울을 나고 싶습니다.
최영심(Alkyltion1팀 전정배 사우 가족)



<가족 추억 공작소> 유금현 사우(아로마틱1팀) 가족
딸아이가 결혼해 손자 볼 생각을 하니
마음에 행복이 밀려옵니다.
김채형(동산주유소.전북 익산시 목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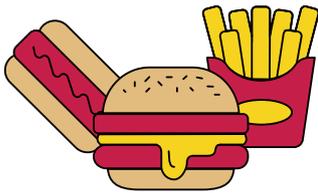


<함께하는 풍경> 공장 가족체육대회
활력 넘치는 소통으로 핵심가치를 일깨우는
모습에서 단합된 힘을 느낍니다.
윤복덕(포천농협주유소.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이달의 퀴즈

Quiz 01. 생활안전 아이콘

장거리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에 도움 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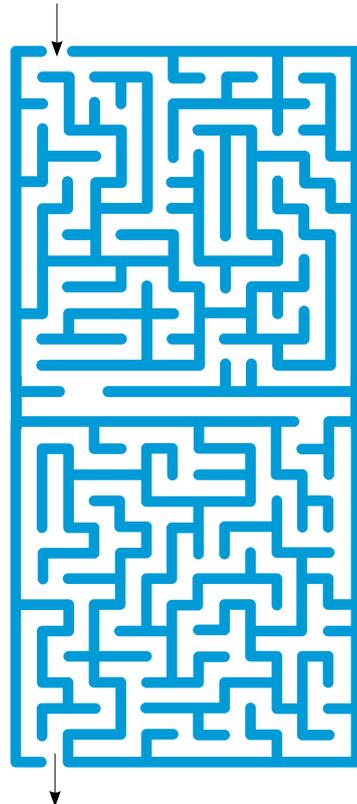
①



②

Quiz 02. 즐거운 두뇌 훈련

출구를 찾으세요





<함께하는 풍경> 직영주유소 현장 화재 대응 훈련
 '안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승진(직영네트워크관리팀)



<취미탐구생활> 관계탐구형 취미 정보
 취미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점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김민주(Hydrocracker팀 김영환 사우 가족)



<햇살나눔> HYC공장봉사단 어르신 동행 나들이
 지역사회와 어르신을 위한 활동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임현숙(신규사업팀 조성환 사우 가족)

지난호 퀴즈 정답

지난호 퀴즈 당첨자

다른 그림 찾기



우리말 바로 쓰기

- ① 연말 감사 인사를 ① 문자메시지 ② 문자메세지로 전해야겠군.
 → 연말 감사 인사를 '문자메시지'로 전해야겠군.

해설 | 영어 'message'는 [mesɪdʒ]로 발음한다. 외래어 표기법 제2장에 따라 [ɹ] 발음은 'j'로 적어야 하므로, '메세지'가 아닌 '메시지'로 표기한다.

- ② 언제쯤이면 돈을 ①한 움큼 ②한 움큼 쥐어볼까.
 → 언제쯤이면 돈을 '한 움큼' 쥐어볼까.

해설 | '움큼'은 손으로 한 줌 움켜질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다.

블루투스 스피커

김동윤(VDU과)
 정요훈(탈황1팀)
 김재현(아로마틱팀)
 권오학(계기1팀)

휴대폰 보조배터리

조병호(윤활팀)
 손경훈(Hydrocracker팀)
 김현일(탈황1팀)
 이창수(계기2팀)



올해 사보 표지는 핵심가치를 통찰해 볼 수 있는
동화 이야기를 소재로 그려나갑니다.

